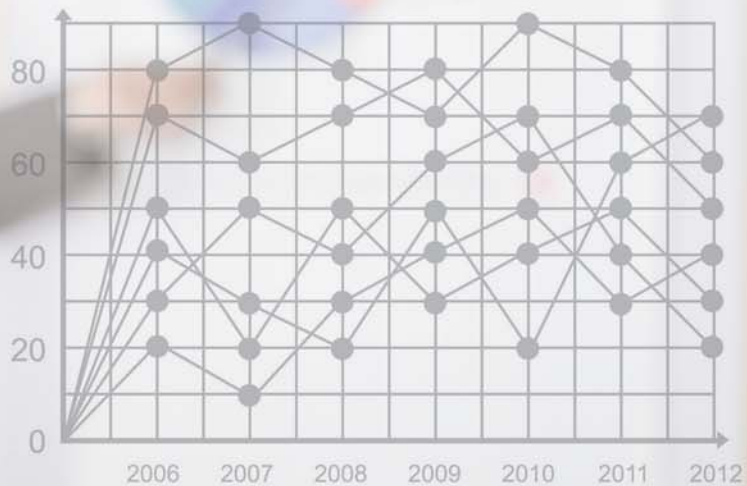


경영저널

정책 영천, 세계 최고 말 테마파크로 도약 채비
특집 청년층 취업난 심각
COVER STORY 김관용 경북도지사
포커스 리딩 “노후 여객자동차터미널 시급히 정비해야”
교육 수성구, 교육특구 자리매김
조직전단 대구시·경북도 조직 유효성 뛰어나다
Industry 대구 노후산단 새단장
이슈 앤 이슈 “구간 연장 등 현안 과제 조속히 풀어야”
전단 경기 전망 올 하반기 수출시장 ‘먹구름’
메디컬 내 몸안의 보호막 예방접종

51th
2015 8

www.**KEPI**.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한 | 기 | 연



- 07 **정책**
영천, 세계 최고 말 테마파크로 도약 준비
- 08 **특집**
청년층 취업난 심각
- 10 **특집**
청년층 일자리 창출 적극 나서야
- 12 **Economic**
올 상반기 대구지역 전·월세 거래량 큰 폭 증가
- 14 **Cover Story**
김관용 경북도지사
“사람냄새 나는 경북,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창조할 터”
- 18 **경북도정**
유라시아 문화특급 ‘실�크로드경주2015’
8월 21일 천년고도 경주서 개막
- 20 **포커스 리딩**
“노후 여객자동차터미널 시급히 정비해야”
- 22 **칭찬합니다**
조광득 범어롯데캐슬 경비원
- 24 **정책제안**
김천시, ‘체류형 생태관광도시’로 변모
- 26 **정책제안**
“철저한 원가분석 통해 운영적자 최소화 및
유수율 제고에 힘모아야”



할매 · 할배의 ♥ Happy day 날이 오면...

경상북도가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 할배의 날’로 정합니다.

동구 밖에 낫선 차 소리만 들려도
아들 며느리가 싶어 벌떡 일어납니다.

하지만 공부하는데 방해 될까봐
먼 길 피곤할까봐
보고싶다는 말 한마디 쉽게 할 수 없으셨던 어르신들.

그날이 오면 우리 ‘손자’ ‘손녀’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녀석’들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 28 **정책제안**
경북도, 계약원가심사로 예산절감 효과 특특
- 30 **지자체는 지금**
칠곡군 인구 수직상승
- 32 **기획**
범어네거리 일대 대구 대표 금융허브 우뚝
- 34 **교육**
수성구, 전국 대표 교육특구 자리매김
- 36 **조직진단**
대구시·경북도 조직 유효성 뛰어나다
- 38 **Industry**
대구 노후산단 새단장
- 40 **축제**
'수성못페스티벌' 지역 명물 축제로 각광
- 42 **이슈 앤 이슈**
"구간 연장 등 현안 과제 조속히 풀어야"
- 44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대구인구 감소세 지속
- 46 **청호(靑湖)칼럼**
인(仁)에 대해
- 48 **진단 경기 전망**
올 하반기 수출시장 '먹구름'
- 50 **출동 현장속으로**
○○시 용역계약 역외기관 독식
- 52 **메디컬**
내 몸안의 보호막 예방접종
- 54 **지역소식**

경영저널

통권 제51호

발행인·인쇄인	이진구
편집장	서기대
취재	배은정
사진	이유진
편집디자인	류영철
편집위원	민경량, 서용준, 윤정현, 홍순대
광고	한혁동
인쇄처	신흥인쇄(주)
발행처	www.경영저널.com
본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북본부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46-8
대표전화	대구 053) 766-1368 FAX 053) 766-1356 경산 053) 811-2820
등록번호	대구라07691
창간	2007년 11월 5일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구독 및 광고 문의	053)766-1368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90,000원
정가 : 8,000원
예금주 : (주)경영저널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 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대구·경북 시·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706-8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k_journal@daum.net
전화 053) 766-1368 FAX 053) 766-1356

Silk Road Cultural Festival in Gyeongju 2015



8.21_10.18 (59일간)

장 소: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및 경주시 일원

주 최: 경상북도, 경주시

주 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www.cultureexpo.or.kr

유라시아 문화특급

실크로드 경주 2015



영천, 세계 최고 **말** 테마파크로 도약 준비



영천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말 테마파크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프로젝트 명(名)은 '렛츠런파크 영천'.

총 사업비 3천657억원을 투입해 영천시 금호읍 일원 147만4천여㎡(446천평) 부지에 경마시설과 패밀리파크존, 레이싱파크존, 레포츠파크존 등 다양한 테마파크를 함께 갖춰 세계적 복합휴양레저문화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궁극적 목표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시 오는 2018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렛츠런파크 영천조성사업'은 7월 현재 순조로운 사업진행 과정을 보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을 위해 총상금 5억원을 걸고 국제공모를 통해 경마 및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5개 작품을 선정했다.

또 국제설계공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업체를 7월 중 선정하고 입상작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의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설계(안)를 확보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다. 한국마사회 측은 이를 기반으로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해 내년 3월 설계에 본격 뛰어들 방침이다.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 추진설명회도 최근 열려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박계화 한국마사회 영천사업추진단장 등 복수의

마사회 관계자들은 지난 7월9~10일 이틀간 경북도와 영천시를 잇달아 방문해 김영석 영천시장 및 경북도 관계자와 한담을 갖고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에 대한 일부 지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투자계획 및 사업 추진과정을 설명하는 성격이 농후한 자리였다는 평을 얻고 있다.

박계화 단장은 이 자리에서 "신개념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국제아이디어 및 설계 공모 등에 따른 법적 소요기간 준수로 마치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국제설계 공모 계획설계(안)를 바탕으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설계기간은 되레 단축된다"면서 "오는 2018년 상반기 완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또 "'렛츠런파크 영천'을 누구나 가보고 싶은 지역 랜드마크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세계적 말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동시에 경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정현 편집위원

청년층 취업난 심각



지난 2013년 3월 대구지역의 한 4년대 대학을 졸업한 김윤석(경북 경산시 중방동·29)씨는 현재 구직활동에 여념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무려 50여 업체에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에 실패한 케이스다. 그는 지난 3월에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서류전형에 합격한 후 1~2차 적성 및 면접시험까지 올랐지만 결국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다. KTX편으로 대구에서 서울까지 왕복 교통비에 식비, 이력서 우편발송비 등을 합해 이번 구직활동에만 2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고 한다. 대학 졸업 후 2년 2개월여 동안 취업준비를 하면서 구직활동에만 족히 3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는 게 그의 뉘즈리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부모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아 취업준비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돈으로 그는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1년전 등록한 학원비와 교통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 지역의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만난 김씨는 “취업에 성공해 연로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 “주위에서 결혼적령기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만 마땅한 직장이 없다보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청년층 실업률 수직상승

경기부진 여파로 기업들이 몸집을 줄이고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의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2%로 전달(9.3%)에 비해 0.9%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1999년 6월 11.3%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 2012년 7.5%에서 2013년 8.0%, 지난해 9.0%로 높아진 데 이어 올 들어선 10~11%대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등 악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이 이처럼 심각성을 드러내는 데는 고학력 취업난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물로 풀이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규인력 채용 규모를 줄이려는 경향이 고착화되면서 고학력의 청년실업난은 장기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본보가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대 등 지역 4개 대학의 2014년도 졸업자를 대상으로 고용 현황(본고 기준)을 점검·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취업대상자 평균 취업률은 고작 51.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희망자 100명 중 대략 51명 가량만 취업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고학력 청년층이 겪는 취업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되는 셈이다.

대학 별로는 대구대가 52.2%로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계명대 52.1%, 영남대 50.8%, 경북대 4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계약직 고용형태를 제외한 순수 정규직 취업 규모는 이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게 지역 고용시장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역대학의 한 진로지원 담당자는 “경기불황과 함께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최근들어 취업문은 한층 좁아진 상황”이라면서 “취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부터 철저한 자기개발과 함께 취업준비에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청년층 고용시장 올해도 냉각

청년층 취업난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구직자들이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 중 하나인 대기업과 공기업이 신규 채용 규모를 평년에 비해 대폭 줄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번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청년층 취업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지만 글로벌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의 100인 이상 기업체 377곳을 대상으로 ‘2015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예상) 규모는 전년대비 3.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이 기간 대기업(300인 이상)은 3.4% 감소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100~299인) 또한 6.5%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신규채용에 즉시 반영함에 따라 대기업보다 채용규모 감소 폭이 클 것으로 경총 측은 분석했다.

신규채용 규모 기준으로 대졸층 또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졸 신규채용은 전년대비 2014년 1.9% 증가에서 2015년엔 -3.1%로 나타났으며, 이 중 중소기업 대졸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해 1.5% 감소에서 올해 8.5%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감소 폭이 한층 확대된 양상을 띠었다.

정부, 제도적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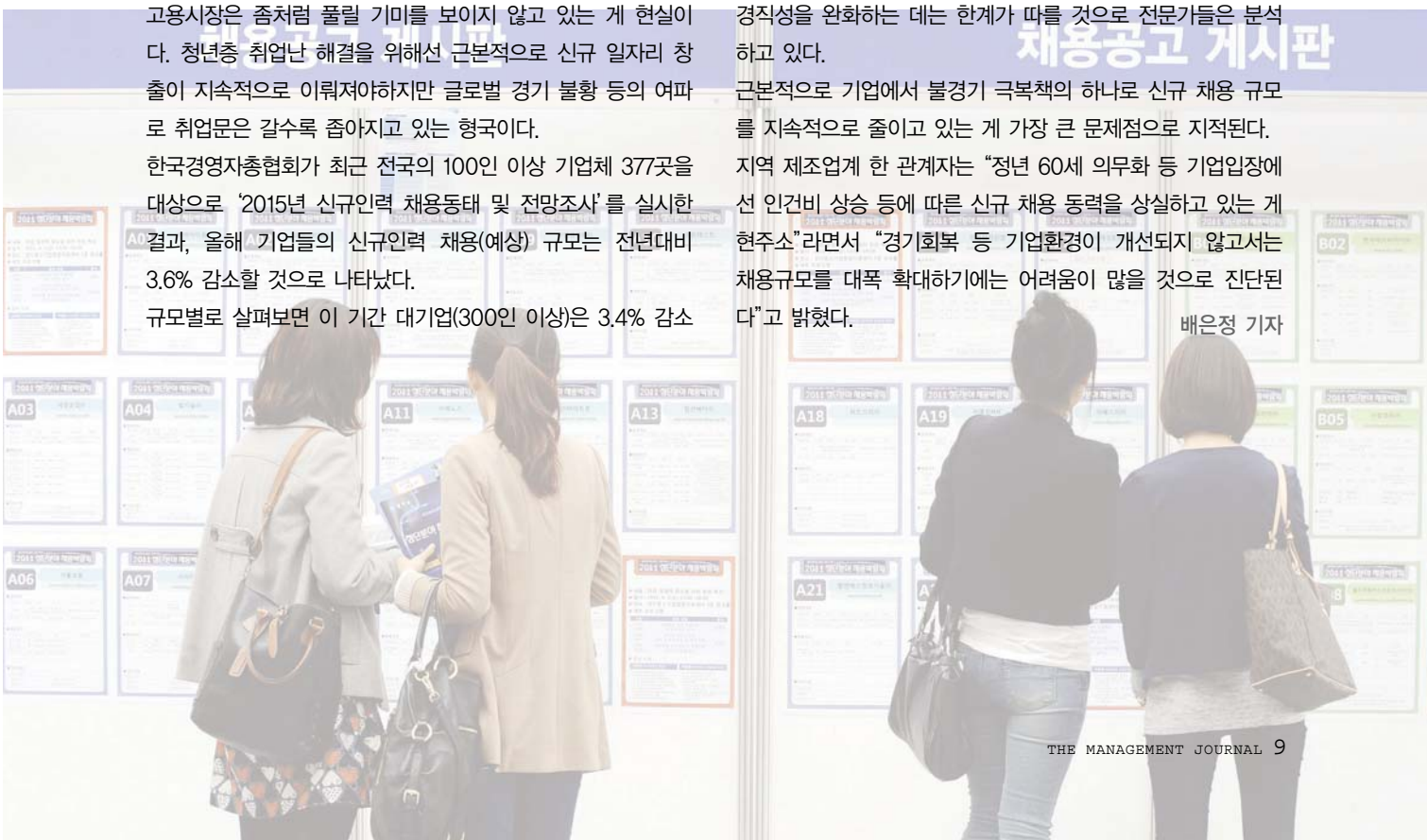
사정이 이러하자 정부는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과세 특례 일몰 기간을 2년 연장하고 감면을 또한 현행보다 2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이후 3년 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했으며,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청년 구직자(15~29세)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오는 2017년까지 근로소득세를 75% 가량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불경기 여파로 세수부족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것은 청년층 구직난 해소를 위한 정부 측의 선제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 확대에 불구하고 청년층 구직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업에서 불경기 극복책의 하나로 신규 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역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정년 60세 의무화 등 기업입장에선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신규 채용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게 현주소”라면서 “경기회복 등 기업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채용규모를 대폭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진단된다”고 밝혔다.

배은정 기자



청년층 일자리 창출 적극 나서야

경제활동인구의 핵심 연령대인 청년층 취업난 가중은 본격적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최대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미래를 불확실하게 여기는 젊은층이 늘어나면서 연애·결혼·출산을 꺼리는 이른바 '3포세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병폐에 빠진 형국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개선해야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상황을 살펴보면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저유가·저금리·저원화가치 기반의 3저(低)현상 가중 속에 한국 경제는 저성장 늪에서 허덕이는 상황이다

특히 불경기 여파로 노동시장에선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 구직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청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기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경기로 인한 최대 피해자 '청년층 구직자'

청년층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나타난 대표적 결과물로 분석된다. 본격적인 성장 둔화기에 접어들면서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게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는 올초만 하더라도 저유가, 저금리, 원화가치 하락에 편승한 이른바 '3저현상'의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우선 내수시장에선 소비 심리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올 1분기(1~3월) 우리나라 평균 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72.3%까지 떨어져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여파로 실종된 소비

심리는 최근 중동발(發) 메르스 확산에 따라 더욱 곤두박질치는 모습이다. 한국 경제의 엔진인 수출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지속적인 수출 규모 감소 속에 불황형 흑자 구조를 나타내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예컨대 지난 5월 수출실적만 살펴봐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9% 줄어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20.9%) 이래 6년만에 최대치 하락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해지면서 기업들의 채용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층 구직자에게 돌아가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불경기 가중 속에 기업체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실적 성장세를 동반한 호황기 때 채용을 확대하는 데 반해 불경기에는 채용문턱을 높이는 게 보편적 경향이다.

‘구직난’ 청년층 미래사회 불안감 고조

이처럼 불경기 여파로 상당수 기업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미래 주역인 청년층의 불안은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한 시중은행에서 실시한 창구직 직원 모집에 무려 3천여명이 응시한 사례는 청년층 구직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는 해를 거듭할 수 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6월 현재 관련 일자리에 종사 중인 청년층만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는 게 경제당국의 분석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5~29세 청년 취업자 네 명 중 한 명꼴로 1년 이하의 비정규직 형태의 신규 고용 창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직장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 사이에선 미래를 불안해하며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이른

바 ‘3포세대’라는 자조 섞인 말도 이 때문에 불거지고 있다.

“정·재계,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청년층의 실질적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해선 정·재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현재 청년층 취업 활성화를 위해 취업 연계를 골자로 한 인턴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업에 직·간접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근들어 청년 고용 활성화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기에도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을 골자로 한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절벽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그 대안을 임금피크제 운영을 통해 찾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 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들이 자칫 신규 고용을 줄이면서 청년층 실업난 가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실적으로 청년층 고용 창출을 획기적으로 늘리지는 못할 것이란 비판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청년층의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선 추경 확대 편성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정책적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동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추경을 포함한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는 한편 기업체에서도 정규직 일자리 확대 등 청년층 고용 창출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는데 주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배은정 기자



올 상반기 대구지역 전·월세 거래량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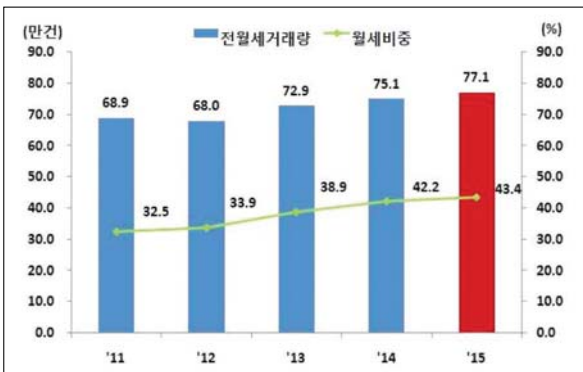


부동산가격 고공행진 속에 올 상반기(1~6월) 대구지역 전·월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대구의 전·월세 거래량은 2만6천4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16.8%)에 이어 증가 폭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대구에 이어 충북과 서울이 각각 6.4%, 5.3%를 기록해 3, 4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2.7%에 그쳤고,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평균은 각각 2.4%와 2.9%로 조사됐다.

이 기간 경북의 전·월세 거래량은 1만9천953건으로 -3.7% 역성장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대구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4천214건으로 전월에 비해 0.9%,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선 2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북은 2천994건을 기록, 전달대비 4.7%,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선 10% 늘어난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연도별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추이 (전국)

전국적으로 전달대비 전남(2천99건)이 46.4%를 기록해 1위에 올랐으며, 이어 광주(31.0%, 충남(17.5%) 등이 뒤를 이었다. 전달대비 수도권은 8만3천712건을 기록해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강남 3구는 9.0% 늘어나 수도권 평균에 비해 거래량이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은 77만1천332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5만1천328건)보다 2.7%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6월 전·월세 거래량은 12만5천674건으로, 전달대비 8.0%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선 12.0%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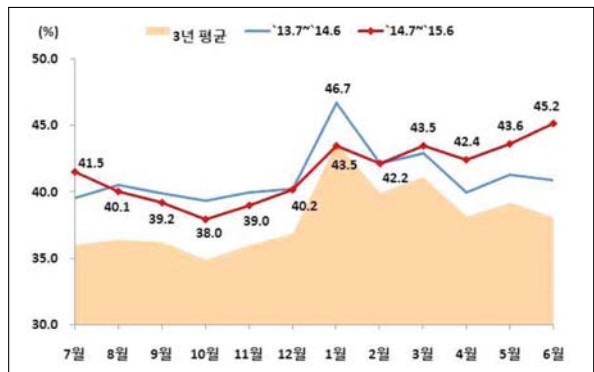
올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 지난해 같은 기간(42.2%)에 비해 1.2%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로, 전월 대비 1.6%, 전달 같은달 대비론 4.3%포인트 각각 늘어난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에 비해 월세 계약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부동산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34만8천9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거래량은 2.4% 늘어난 42만2천431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0만8천467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지방은 3.1% 늘어난 26만2천865건으로 나타났다.

배은정 기자



월별 월세비중 (전국)

안심 파트너! 온:캣!

스마트 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HD화질로 생생하게!
혼자 있는 어린 자녀, 부모님, 반려동물까지 온:캣으로 지켜주세요.



**24시간 LIVE로 만나는 영상보안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 ON:CAT!**

약정 후 무상양도까지!

똑똑하고 실속도 잡는 온:캣 패키지

CCTV+방범보안+안심보험을 결합한 최첨단 영상보안관제시스템, 온:캣!
온:캣 패키지로 불안함도 잡고, 실속도 꼭 잡으세요!



불안을 남겨두지 마세요!

- 100만 화소의 선명한 HD화질
- 적외선 실시간 감시 기능으로 야간감시 가능
- 좌우 350도, 상하 120도의 넓은 감시각도
- 움직임을 감지해 실시간 알람 푸쉬 전송
- 내장된 스피커와 마이크로 쌍방향 음성 통신
- 실시간 저장 및 스케줄링 기능

| 인터뷰 | 김관용 경북도지사



Profile

- 1942년 경북 구미
- 제29~30대 경북도지사
- 제6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한미FTA대책 특별위원장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 제6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장
-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공동회장
- KBC 목민자치대상(2014)

“사람냄새 나는 경북,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창조할 터”

관록의 3선 광역 단체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꿈과 목표는 확보하다. 도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는 게 한결같은 소망이다. 민선 6기 1주년을 최근 맞은 경북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 또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김 도지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FTA파고 극복, 광역 SOC망 구축 등 경북도의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김 도지사는 “주민들의 삶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형 도정 실현을 통해 사람냄새 나는 경북을 만들겠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광역 SOC망 구축 등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이 행복한 살기좋은 경북을 창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Q 먼저 민선6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은?

A 지난 1년, 격동과 시련의 연속이었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다. 세월호, 메르스 등으로 온 나라가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고, 경제적 충격으로 도민들의 생활 또한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지난 도정 1년은 서민경제를 일으키고 도민안전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내내 비상체제 속에서 달려온 것 같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 경북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의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고, 신산업(탄소, 3D프린팅)과 주력산업(ICT융복합, 로봇, 항공, 바이오, 에너지) 육성을 위한 기반도 닦았다. 새로운 경북시대를 열기 위해 도청신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했고, 광역SOC망 구축을 위해 국비를 사상 최대로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경북의 위상을 높인 것 또한 기억에 남는 일이다. ‘이스탄불 in 경주’, ‘해양실�크로드’, ‘새마을 세계화’ 등으로 국제화에 앞장섰고, 무엇보다 지난 4월에 개최한 세계물포럼은 전 세계 168개국에서 4만6천여명이 우리 대구·경북을 방문해 지구촌 물문제를 함께 논하기도 했다. 지난 1년, 도민들과 함께 현장을 지키며 힘든 고비를 모두 넘어 왔고, 또한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시간이기도 했다.

Q ‘실�크로드 경주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올 하반기에도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

A 우선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는 ‘유라시아 문화특급’을 주제로 59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및 경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중국,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등 실�크로드 국가와 경북도, 경주시 우호자매도시를 포함해 30~40여개국이 참여한다. 8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다채로운 전시, 공연, 영상, 체험, 학술행사 등 신라와 경주, 경북,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30여개의 특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각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이 짜여져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고, 미비한 시설은 보수와 보강을 통해 완벽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내국인은 물론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등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문경시 등 8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 110여개국에서 8천7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이다. 국방부에 21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꾸려져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정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해결되어 경기장과 선수촌 조성 등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소도시에서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치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난 번 세계물포럼에 이어 경북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토록 하겠다.

Q **민선 6기 경상북도의 핵심 공약이자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도청이전일 것이다. 신도시의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이전이 미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안에 도청이전은 가능한가?**

A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는 올해 5월 이미 준공되었고, 신도시를 위한 1단계 부지조성 공사도 공정률이 95%에 달해 연말이면 완공될 예정이다. 안동방면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 주요 기반시설도 대부분 8월이면 마무리되어 기본적인 이사 준비는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택과 학교 등 주요 정주여건이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있어 이주 후에 얼마동안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도청이전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말 도의회 일정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11월초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성공적인 도청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Q **본격적인 농업 개방시대. 경북은 전국 최대 농도인 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중 FTA로 값싼 중국 농산물이 대규모로 쏟아져 들어오고, 가공품 시장까지 개방되면서 피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해 나갈 계획인가?**

A 우리나라는 칠레, EU, 미국 등 세계 49개국과 FTA를 발효했고, 중국, 뉴질랜드 등 4개국과는 협상이 타결된 상태다. 특히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의 경우 지리적 인접성, 생산 품목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우리 농어업인들의 위기감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전국 농가의 17.2%를 차지하고, 도 전체 인구의 16.7%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북 또한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큰 희생이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시장개방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경북 농민사관학교를 설립해 농어업 전문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으며, 정책마련을 위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민간협치기구인 FTA대책특별위원회도 전국 최초로 구성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개방화시대에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체질개선이므로, 농수산물의 품질 고급화,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영농시스템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 초에는 한·중 FTA를 계기로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FTA 대응 경북 농어업 경쟁력제고 종합대책'을 수립해, 오는 2024년까지 농어업 소득 4만불 달성을 목표로 10년간 13조3천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다만 농어업인들과 함께 FTA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지방 차원의 대책과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역이득공유제, 국내산 농수산물의 가격폭락에 대비한 보완장치 법제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Q **경북의 또 다른 문제가 광역 SOC망 구축사업이다. 취임후 SOC 사업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상황은?**

A 지난 2006년 도지사에 취임하면서 '더 빠른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SOC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어 올해 SOC 국비 확보액만 2006년 대비 4.2배나 증가한 6조3천억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준공 개통되는 사업은 15개이고, 신규로 착공되는 사업만 12개에 달한다. 특히 경북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이 교통오지의 오명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속도로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에 88고속도로와 포항~울산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며, 상주~영덕간 동서4축 고속도로는 내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또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는 실시계획 중에 있으며, 세종시~신도청간 동서5축 고속도로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철도 분야에서는 KTX포항직결선이 지난 4월 개통되었으며, 중앙선북선은 2018년 개통될 예정에 있다. 또 동해남부선(포항~울산)은 2018년 개통 예정이며,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은 작년 12월에 착공한 상태이다. 공항, 항만 분야에서는 남부권 신공항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울릉공항은 2021년 개항 예정에 있고, 예천공항은 도청이전과 함께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영일만항은 6선석 규모로 2020년, 울릉사동항 역시 2019년 완공 예정에 있다.

Q **지사님께서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20년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은 2할 자치, 사무는 3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A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출발부터 잘못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밀로부터의 간절한 소망이나 투쟁 과정 없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공짜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 인해 중앙중심의 가치관은 고착화되었고, 지방을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지방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태이다.



그 결과 20년 동안 외형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용과 콘텐츠는 부족한 '무늬만 지방자치'를 이어가고 있다. 즉, 내 고장 일꾼을 스스로 뽑는 틀은 마련되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재정은 2할 자치, 사무는 3할 자치, 수도권 1극주의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3대 아젠다인 분권, 재정, 균형을 함께 풀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조직원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제 지방의 역량을 믿고 과감하게 이양하고 대신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자주권 강화가 요구된다.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을 높이고, 복지 등 국가사업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획기적인 지방발전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Q 말씀하신대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야말로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A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우선 수입측면에서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로써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지출측면에서는 오히려 국가가 40%, 지방이 60%를 집행하고 있다. 지방세로 인건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44개 자치단체 중 126개에 달한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우선 수입 측면에서 국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을 단기 30%, 장기에는 OECD 수준인 40%까지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6%까지 높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출 측면에서는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매칭 부담을 덜어주어

야 한다. 특히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국가사업의 경우에는 완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해 주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농어촌 지역인 군단위의 경우 자주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부세와 같이 지출 항목에 한계가 없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9.24%에서 21%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은?

A 무엇보다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도정의 모든 주파수를 일자리로 맞춰 나갈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투자유치에도 올인할 것이다. 경상북도의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도청 이전 및 신도시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도청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경북의 정신과 혼이 옮겨가는 대역사다. 세종시와 동일 위도상에 위치한 신도시를 앞으로 한반도의 동서를 잇는 황금허리 창조경제권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광역SOC망 구축에도 매진해 더 가까운 경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속도로와 철도, 공항, 항만 등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해 경북의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풍부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체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미래 경북을 먹여 살릴 신성장 산업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본격 가동해 제조업 혁신과 에너지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며, 탄소소염, 3D프린팅, ICT융복합, 로봇, 항공, 에너지, 바이오 등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

연이은 FTA 타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본다.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무역이득공유제, 원산지 증명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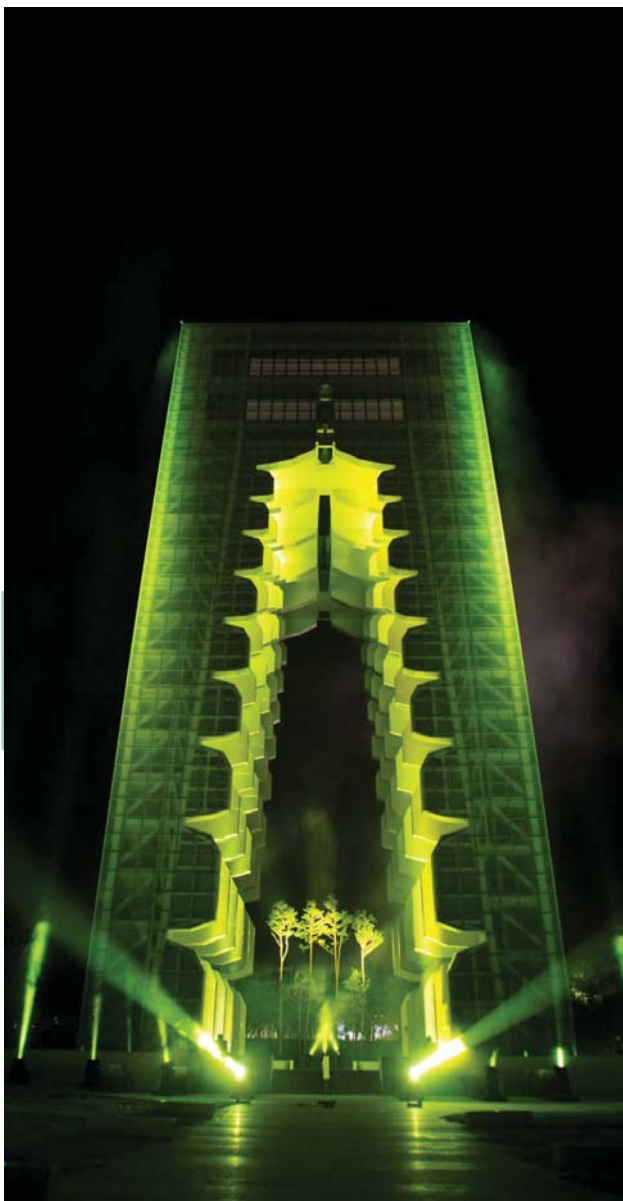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주민들의 삶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복지를 실현해 사람냄새 나는 경북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참일꾼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서기대 편집장

유라시아 문화특급 '실크로드경주2015'

8월 21일 천년고도 경주서 개막

유라시아 문화특급 '실크로드경주2015'가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린다. 8월21일부터 59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과 경주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실크로드경주2015'에서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등 실크로드 국가와 경북도, 경주시 우호자매 도시를 포함해 30~40여 개국이 참가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 가을 경주를 유라시아로 물들일 '실크로드경주2015' 속으로 들어가본다.



한국 문화 우수성 알릴 프로그램 준비

'실크로드경주2015'는 '유라시아 문화특급'을 주제로 59일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및 경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8월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18일까지 다채로운 전시, 공연, 영상, 체험, 학술행사 등 신라와 경주, 경북 그리고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30여개의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우선 첫 번째 테마인 '문명의 만남'은 실크로드 국가들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실크로드 각국의 전통차 거리를 중심으로 음식, 공예품, 민속공연 등을 한 곳에 모은 <실크로드 그랜드 바자르>는 '실크로드경주2015'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국의 전통 가옥 특징을 살려 부스를 만들고, 각국의 전통 옷을 입은 각국의 상인들이 직접 장터를 운영하는 등 관람객들을 사로잡을 먹을거리·볼거리가 풍성하다. 주제전시 <실크로드 오디세이>는 실크로드 사막에 묻혀있는 신비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실크로드 환상 여행이다. 특히 주제전시관에는 <북한관>과 <새마을관>이 함께 설치될 예정이어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실크로드 선상의 국가들과 북한, 경북을 연계해 유라시아 문화특급을 실현할 예정이다. 북한관의 설치는 고구려 '평양'과 신라 '경주'가 고대 실크로드 도시라는 점을 확인하고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주문화엑스포 공원내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무용극 <바실라>는 고대 페르시아의 구전 서사시인 '쿠쉬나메' 스토리를 재구성해 신라와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교류를 재조명한 작품이다. 특히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사랑이야기는 관객들의 가슴을 적신다. <실크로드 리얼리즘>을 통해서도 중앙아시아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특징과 느낌을 풍부하게 표현한 대작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두 번째 테마인 '황금의 나라 신라'는 찬란했던 황금문화를 바탕으로 신라예술과 문화를 조명한다.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과 신라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금을 바탕으로 시대별 신라예술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전시인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은 201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열렸던 '황금의 나라 신라' 기획전의 귀국전으로 추진된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83호) 등 100여점의 황금유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다. 〈실크로드 빛의 향연〉은 경주타워를 LED, 3D영상, 조명 등을 통해 빛으로 물들이는 첨단 멀티미디어 쇼로 관람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 특징이다. 최첨단 ICT기술 구현을 통해 세계 최고의 석굴사원인 '석굴암'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석굴암 HMD(Head Mounted Display) 트래블체험관〉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 중 하나로 꼽힌다.

마지막 테마인 '어울림 마당'은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마련된다. 터키 메흐테르 군악대를 주축으로 다양한 실크로드 국가들의 전통악기 공연단의 연주를 볼 수 있는 〈실크로드 퍼레이드〉, 신라시대 화랑들이 시간의 문을 통해 과거와 현대를 넘나들며 실크로드 국가들을 여행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플라잉 : 화랑원정대〉, 년버벌·연극·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공연 예술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 공연 축제인 〈코리아 in 모션 페스티벌〉, 이탈리아 크레모나의 현악기와 경주의 삼현삼죽을 활용한 〈동서양 뮤직 페스티벌〉 등이 펼쳐진다. 실크로드 각 국의 문화가 한 곳에서 어우러지고 서로 소통하는 마당이 펼쳐지는 것이다.

경주엑스포 준비체제 본격 돌입

경주엑스포도 성공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실크로드 그랜드바자르'가 열리는 천마광장, 주제전시 '실크로드 오디세이'와 '북한관', '새마을관'이 설치되는 천마의 궁전, '실크로드 주얼리 in 드라마전'과 '석굴암 HMD 트래블체험관'이 열리는 경주타워 등 경주엑스포 공원 전체를 새단장하고 관람객을 맞을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여기에서 엑스포 공원의 스테디셀러로 '실크로드경주2015'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선보일 '플라잉 : 화랑원정대'는 스토리를 확정하고 새 외국 배우들의 합류를 완료한 상태다. 해외 공연단 등 행사참가자들 또한 8월초부터 속속 입국해 리허설을 갖고 있다.

글로벌 문화 브랜드 자리매김

경주엑스포는 그동안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과 '이스탄불in경주2014'를 통해 역사문화수도 경주와 경북도의 문화 브랜드파워를 대내외적으로 선보이며 문화융성 시대의 개막을 이끌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올해는 실크로드 선상 30~40여개 국가들의 참가를 통해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주에서 매년 선보이는 문화행사가 단순히 지역 축제가 아닌 글로벌 문화 브랜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서 대규모 글로벌 문화행사인 만큼 행사기간 동안 경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람객들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음식점, 숙박, 레저 등 관광특수가 예상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과 인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는 문화를 통한 '신(新) 실크로드' 개척을 통해 유라시아로 가는 길을 활짝 열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대규모 문화축제를 함께하며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 또한 큰 자산이 되는 동시에 산업·관광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경제교류로까지 이어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인 만큼 인류 평화와 공존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가치실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종교·이념·이해관계 등의 벽을 넘어 문화라는 공통된 속성을 통해 세계인이 하나 되는 진정한 화합과 소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은정 기자



“노후 여객자동차터미널 시급히 정비해야”

노후화된 경북지역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이미지 개선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월말 기준으로 도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72곳에 달하며, 대부분 지난 1970~80년대 조성된 탓에 심각한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따라서 관문 이미지를 살린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정비 및 개발을 통해 지자체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노후화 문제 심각

경북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은 현재 심각한 노후화 및 시설 불량문제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다.

도내 전체 여객자동차터미널 72곳 중 63곳(87.5%) 가량이 조성된지 30년을 넘은 노후시설인 까닭이다.

자가용 보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은 해를 거듭할 수 록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민간사업자의 경영난 악화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영악화는 곧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고속 및 시외버스 수송실적은 지난 2003년 3천500만명에서 지난 2012년엔 2천300만명으로 9년 새 32.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72개 여객터미널 중 무려 30곳이 하루 이용객수 50명 이하에 그치고 있으며, 2천명 이상은 포항·경주·안동·구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런 현상은 경북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분위기다. 국내 고속 및 시외버스 수송실적은 지난 1994년 6억7천500만명에서 2012년엔 2억6천500만명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18년동안 연평균 5.07%씩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철도역, 공항 등과 함께 지자체의 대표적 관문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노후화 문제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주범으로 지적된다.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기반시설인 만큼 임시방편적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정비사업에 조속히 나서야한다는 주장도 이 때문에 나온다.

전국 각 지자체 역점사업으로 부상

노후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은 전국 각 지자체에서 대표적 역점 프로젝트로 조명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서울, 부산, 인천, 울산시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선 이미 지난 1990년 후반부터 현대식 복합용도터미널 개발에 본격 나선 상황이다.

성남·수원·고양시 등 수도권지역 지자체 역시 2000년들어 도심 혼잡 해소 및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터미널 외곽지역 이전사업에 본격 뛰어들어온 형국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대표적 모범 사례로는 상주 및 안동터미널 개발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상주터미널은 민간사업자가 지난 2007년 기존의 도심 지역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판매시설 중심의 복합용도터미널로 개발한 사례다. 이에 반해 외곽지로 옮겨 조성한 안동터미널은 지난 2011년 기존 도심에 위치한 터미널의 부지 협소, 시설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안동시와 민간사업자가 손을 잡고 환승시설을 갖춘 복합용도터미널로 개발한 케이스다.

도시 이미지 살린 관문이미지 도출해내야

노후화 문제에 직면한 도내 주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정비사업은 큰 틀에서 해당지역의 관문 이미지를 살린 여객터미널로 단장,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뒀아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발 방향은 읍면과 군청, 시청 소재지 등에 따라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눠 추진해야할 것으로 진단된다. 우선 읍면지역에 위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시내버스정류장과 간이터미널로 대체, 현지 주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교통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뒀아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와 달리 군청 소재지에 들어서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해선 현대식 복합용도시설로 개발, 수익창출과 공공재로서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 확보가 여의치 않을 시 지자체 주도로 경영터미널로 개발,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시청 소재지에 조성돼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개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공적 목적 유지를 위해 현대식 복합용도로 개발하되 교통혼잡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 등 도시 특성을 감안해 외곽지 이전 등 면밀한 검토후 개발에 본격 나서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북지역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6월말 현재 시군별로 청송군이 9곳을 확보해 가장 많고, 이어 구미·경주시·울진군 각 7곳, 의성군 6곳, 청도군 5곳, 안동·영천시 각 4곳, 상주 3곳 등의 순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구·경북 출연기관 한 관계자는 “노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 등 도시 발전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면서 “도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개발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진단된다”고 밝혔다.

서용준 편집위원



조광득 범어롯데캐슬 경비원 “최적의 정주여건 제공위해 최선을 다할 것”



“얼마 전 집안 일로 결근을 했는데, 입주인 자녀인 초등학교 5학년인 이경윤군이 직접 전화를 걸어 ‘어디가 편찮으시냐’며 안부를 묻더군요. 늘 가족처럼 대해주는 입주민들 덕분에 큰 힘을 얻고 보람을 느낍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롯데캐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광득(58)씨는 이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친절맨으로 정평이 나왔다. 입주민들이 어떤 부탁이라도 하면 즉각 해결해주는 성실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가 바로 그다.

경비업무에 쓰레기 줍는 일, 재활용 쓰레기 분리작업과 화단가꾸기, 택배보관업무 등 주야간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고 피곤한 몸이지만 입주민과 대화를 나눌 땐 늘 웃음꽃 가득한 얼굴로 대하고 있다. 입주민을 위한 그의 선한 마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간이 날 때 마다 입주인 자녀들의 친구가 되어주거나 공부를 가르쳐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경비실에는 평일 오후시간대면 학교수업을 끝낸 입주인 자녀 중 특별히 초등학교생들로 늘 북적이고 있다.

“‘범어롯데캐슬’ 입주인 모두를 가족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일하고 있는데, 근무 날이면 저절로 행복해지고 신바람이 납니다.”

그가 경비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5년 가량 개인택시 기사로 일하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전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늘 살갑게 대해주는 입주민들 덕분이란다.

“근무 날이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경비실에 가져다주는 입주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도 빠트리지 않아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오히려 저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는 입주민들에게 최적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김영순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동료 경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때가 많다고 한다. 입주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란다.

입주민들과의 소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물론 순찰 활동 시 주민들의 안전지킴이가 되어주기 위해 경비 본연의 업무를 소홀하지 않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 말미 이런 말을 남기며 각오를 다졌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정주환경 제공을 위해 미약하지만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입주민들이 행복해지는 ‘범어롯데캐슬’이 되도록 앞으로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그의 얼굴엔 여전히 웃음꽃이 가득 피어났다.

배은정 기자



2015년 대한민국에서
세계 군인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우정의
한마당 축제가 펼쳐집니다!



MUNGYEONG KOREA 2015
6th CISM World Games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2015년 10월 2일 ~ 10월 11일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6th CISM World Games Korea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Address.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Tel. (02)748-5662~9

Fax. (02)748-5655

Website. www.korea2015mwg.org

E-mail. cismmwg2015@gmail.com

기차

김천시, '체류형 생태관광도시'로 변모

박근혜 정부는 최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광, 벤처, 건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3천3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전국의 각 산지를 대상으로 관광휴양시설을 허용하는 등 국토의 관광자원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확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고품질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주력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천시, 관광자원 개발에 총력

김천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관광분야에 국비 275억원을 확보하는 등 관광자원 개발로 생동감 및 활력 넘치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부항댐 관광자원화 사업'은 직지사권역, 증산권역과 더불어 김천시의 3대 관광권역으로서 에코어드벤처 공원, 국내 최장 출렁다리(250m), 고공전망대, MTB 로드, 짚와이어 등을 조성하기 위해 총 95억원(국비 48억원, 도비 5억원, 시비 42억원)을 투입함으로써 부항댐, 산내들 공원 등 주변 관광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천시는 부항댐 일원에 80억원을 들여 캐릭터를 활용한 독특하고 특색있는 숙박시설로 생태체험 펜션 조성에 나서고 있다. 펜션 조성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당일 여행코스가 아닌 역사, 문화, 체험, 생태가 어우러진 종합 관광지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오감을 만족시킬 명품(名品)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최초 친환경 다목적댐인 김천 부항댐은 지난 2013년 11월 총 5천55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높이 64m, 길이 472m, 총저수량 5천430만㎥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홍수피해 예방은 물론 주변에 물문화관(삼산이수관)을 시작으로 산내들 생태공



사이트 외에 다목적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온수샤워장, 취사장 등 편리한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여기에는 부항댐을 조망할 수 있는 14km 길이의 순환일주도로와 산책로, 부항대교, 물 문화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해 가족 및 친구, 연인 등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란 평을 얻고 있다.

생태관광자원 육성 의지도 확고

김천시의 생태관광자원 육성의지도 확고하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부항댐 일대에 출렁다리, 짚라인, 물놀이시설

원(오토캠핑장), 수달테마공원 등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마련해 관광객 등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천 방문 관광객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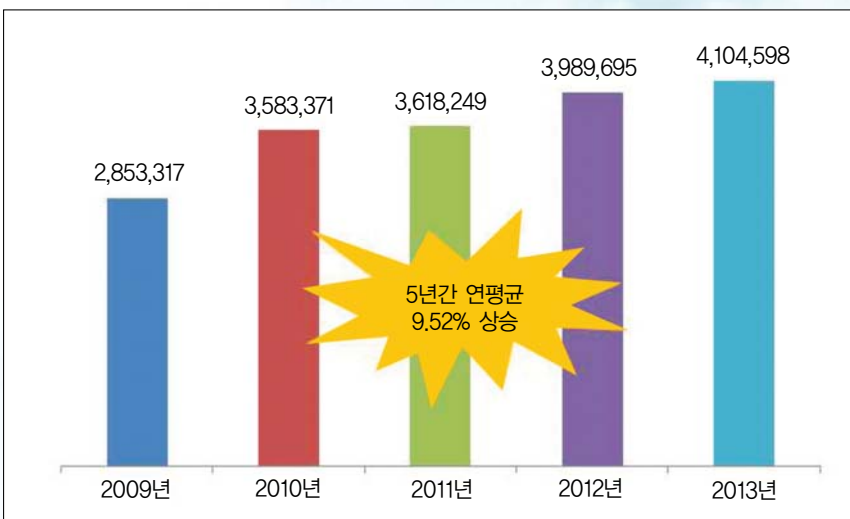
김천시의 주요관광지 방문 관광객 수는 2013년 410만4천598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 연 평균 9.52%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내들 생태공원 오토캠핑장의 경우 주말 예약을 기준으로 올 8월까지 100%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설이용료는 비수기 2만원, 성수기 3만원으로 타 시설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이용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개장한 오토캠핑장은 가족 단위의 힐링을 꿈꾸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캠핑

등 다양한 레포츠 시설과 어드벤처 공원을 조성해 가족중심의 생태체험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천시는 아울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및 계획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김천의 대표 관광지인 직지사를 비롯해 세계도자기 박물관, 직지문화공원, 백수문학관, 청암사 등 다양한 관광명소와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육성하겠다는 게 궁극적 목표다.

한편 박보생 김천시장은 민선 4~6기 지역경제 및 기업유치,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김천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 한국의 미래를 빛낼 CEO’ 혁신부문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김천시 주요관광지 관광객 수 (자료 : 김천시 통계연보)



장동현
한국경제기획연구원 학술팀장



“철저한 원가분석 통해 운영적자 최소화 및 우수율 제고에 힘모아야”

지방 상·하수도는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만성적자, 적기 투자미흡 등 경영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하수도 시설 노후화 및 낮은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수입 금액 비율) 등 구조적 요인 및 경영혁신 노력 부족 등 운영상 비효율성과 맞물려 경영적자의 악순환이 심화 및 지속되고 있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하수도의 경우 경영적자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단계적 요금 적정화와 병행해 강력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하수도 부채 급증

지난 2014년 기준 지방공기업 결산결과를 참고하면, 상수도의 경영실적은 2010년 557억원의 흑자에서 2014년엔 930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하수도 또한 2010년 6천376억원의 적자에서 2014년엔 무려 1조3천362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상·하수도 부채는 지방채무 전체의 약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채무액 증가폭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방채정 채무		289,933	281,618	271,252	285,886	279,913
지 방 상수도	부채액	14,463	14,865	13,905	12,971	11,240
	부채비율	5.0%	5.3%	5.1%	4.5%	4.0%
지 방 하수도	부채액	17,400	28,500	37,917	53,484	59,786
	부채비율	6.0%	10.1%	14.0%	18.7%	21.4%
상·하수도 부채율 합계		11.0%	15.4%	19.1%	23.2%	25.4%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채 현황,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 저렴하다

상수도는 외국에 비해 물 사용량이 많고 요금 수준은 저렴한 상황으로 한국은 1인당 1일 기준(2013년)의 물소비량만 279ℓ 에 달하는 반면 영국의 경우 232ℓ , 프랑스는 139ℓ , 독일은 151ℓ , 덴마크는 114ℓ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물을 소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도요금은 한국의 경우 513원/㎥에 그치는데 반해 영국은 2천357원/㎥, 독일은 3천236원/㎥, 덴마크는 4천348원/㎥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전국 수도관 중 사용기간이 21년 이상 지난 수도관의 비율은 전체의 23%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우수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1년 기준으로 한국의 우수율은 약 85% 수준이지만 일본의 경우 우수율은 약 90%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이로 인해 연간 약 6억톤의 누수가 발생해 5천여억원의 손실 발생요인이 생산원가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 분	한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덴마크
물소비량 (L/인, 일)	279	232	139	151	114
수도요금 (원/m ³)	619	2,357	2,491	3,236	4,348

출처 : 안전행정부 지방 상·하수도 정책방향 (2014)

하수도 경영적자 심화

하수도 또한 낮은 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선 환경오염관련 기준 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진데다 지방재정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BTL방식(Build-Transfer-Lease·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가 증가하면서 영업수익의 대부분(63%)을 BTL 임대료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요금인상안이 의결될 때마다 일부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등이 선거를 의식, 요금 현실화를 기피하거나 연기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요금 인상안을 부결시키는 등 낮은 요금 현실화율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하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독립채산제 원칙 준수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수익으로 비용 충당을 통한 타 회계 의존성을 탈피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금 적정화를 통해 운영적자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진단된다.

이와 함께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운영비 절감 및 유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변동비(인력운영비,약품 재료비, 동력비 등)에 대한 전국 평균치를 제시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는 변동비 세부항목 중 전국 평균보다 큰 항목에 대해 원인분석을 통한 절감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지현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원가팀장

구 분	하수도 요금					
	연간 조정량 (천톤)	하수도수익 (백만원)	m ³ 당 요금 (원/m ³)	총괄원가 (백만원)	m ³ 당 원가 (원/m ³)	현실화율(%)
전국('13)	5,244,358	1,871,831	356.92	4,913,999	937.01	38.09%
서울특별시	1,119,283	498,965	445.79	814,022	727.27	61.30%
부산광역시	382,411	187,693	490.81	293,746	768.14	63.90%
대구광역시	267,039	103,049	385.89	173,905	651.23	59.26%
인천광역시	273,305	113,943	416.91	148,534	543.47	76.71%
광주광역시	152,571	53,605	351.34	87,365	572.62	61.36%
대전광역시	161,886	62,312	384.91	84,256	520.47	73.96%
울산광역시	185,568	74,236	400.05	113,111	609.54	65.63%
세종특별자치시	5,287	1,116	211.08	13,087	2,475.30	8.53%
경기도	1,226,138	379,496	309.51	1,156,129	942.90	32.82%
강원도	127,789	30,085	235.43	193,606	1,515.04	15.54%
충청북도	150,108	46,587	310.35	203,231	1,353.90	22.92%
충청남도	149,317	46,174	309.24	254,708	1,705.82	18.13%
전라북도	191,427	60,817	317.70	243,405	1,271.53	24.99%
전라남도	175,284	32,666	186.36	232,407	1,325.89	14.06%
경상북도	304,759	80,788	265.09	428,815	1,407.06	18.84%
경상남도	312,115	81,886	262.36	354,506	1,135.82	23.10%
제주특별자치도	60,072	18,413	306.52	119,167	1,983.73	15.45%

출처 : 환경부, 2013년 하수도 통계



경북도, 계약원가심사로 예산절감 효과 톡톡

경북도의 지난해 계약원가심사 절감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청 등을 대상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계약 전 철저한 원가심사를 통해 68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이유에서다.



예산 687억원 절감 이목 집중

경북도는 지난해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을 대상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예산 8천173억원(707건)에 대한 계약 전 원가심사를 통해 687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절감률 기준으로 평균 8.4%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절감분야는 공사의 경우 410건에 586억원, 용역은 172건에 94억원, 물품구매는 125건에 7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공무원들을 심사부서에 배치

해 업무편람 작성, 심사사례집 제작, 워크숍 연례 개최에 나서는 등 담당 공무원들의 원가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교개설공사 형식변경(12억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토공조정(11억원), 상수도시설공사 토공 및 부대공 조정(9억원) 등은 대표적 예산 절감 사례로 평가된다.

김종환 경북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현장에 맞는 공법 및 공종, 품셈을 통해 예산낭비를 막고 부풀려진 원가요소를 찾는 데 중점을 둔 동시에 밀도높은 원가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계약심사제' 효율적 운영

경북도는 '계약심사제' 도입이후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및 계약을 위한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설계변경 등의 원가계산, 공중, 품셈 적용의 적정성을 심사해 공정을 조정하거나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시·군 계약원가심사 담당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등 실무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7년 간 축적한 계약원가 심사 경험을 시·군과 함께 공유하고 공사 설계의 오류 및 잘못된 가격 조사를 최대한 발굴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시·군별 원가 절감 효과도 눈길

경북도내 시·군별 원가 절감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집중된다. 경북도정에 발맞춰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 등 예산 절감 노력을 강화한 결과로 이해된

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우선 영덕군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50여 건의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예산 4억1천591만원을 절감한 성과를 거뒀다. 또 청도군은 총 35건(124억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해 전체 심사금액의 11.3%인 1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별로는 공사분야의 경우 23건에 2억8천만원을, 용역분야는 9건에 11억2천만원을 각각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지난 2010년 9월 원가심사 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이래 최근까지 3년 7개월 간 총 1천200건에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경산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일상 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예산 16억3천만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주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총 70건의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군위군도 지난해 관련 심사를 실시해 9억6천만원의 예산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울진군도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9억6천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 관계자는 "각종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절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실시한 결과, 최근까지 예산 41억9천만원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구분	건수	심사요청	심사결과	절감액	비고
계	707	817,274	748,597	68,677	8.40
12월	61	89,639	83,636	6,003	6.70%
11월	58	81,887	76,055	5,832	7.12%
10월	59	83,887	74,792	8,370	10.7%
9월	41	41,516	38,682	2,834	7.01%
8월	28	54,829	50,306	4,523	8.25%
7월	41	44,114	40,736	3,378	7.66%
6월	39	65,386	60,342	5,044	7.71%
5월	47	74,865	68,539	6,327	8.45%
4월	89	73,683	66,652	7,031	9.54%
3월	115	81,780	75,375	6,405	7.83%
2월	89	80,242	72,915	7,326	9.13%
1월	40	46,171	40,567	5,604	12.14%

2014 계약원가 심사실적 (경상북도 제공)



김원현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원가2팀장

민선 6기 칠곡군 인구 수직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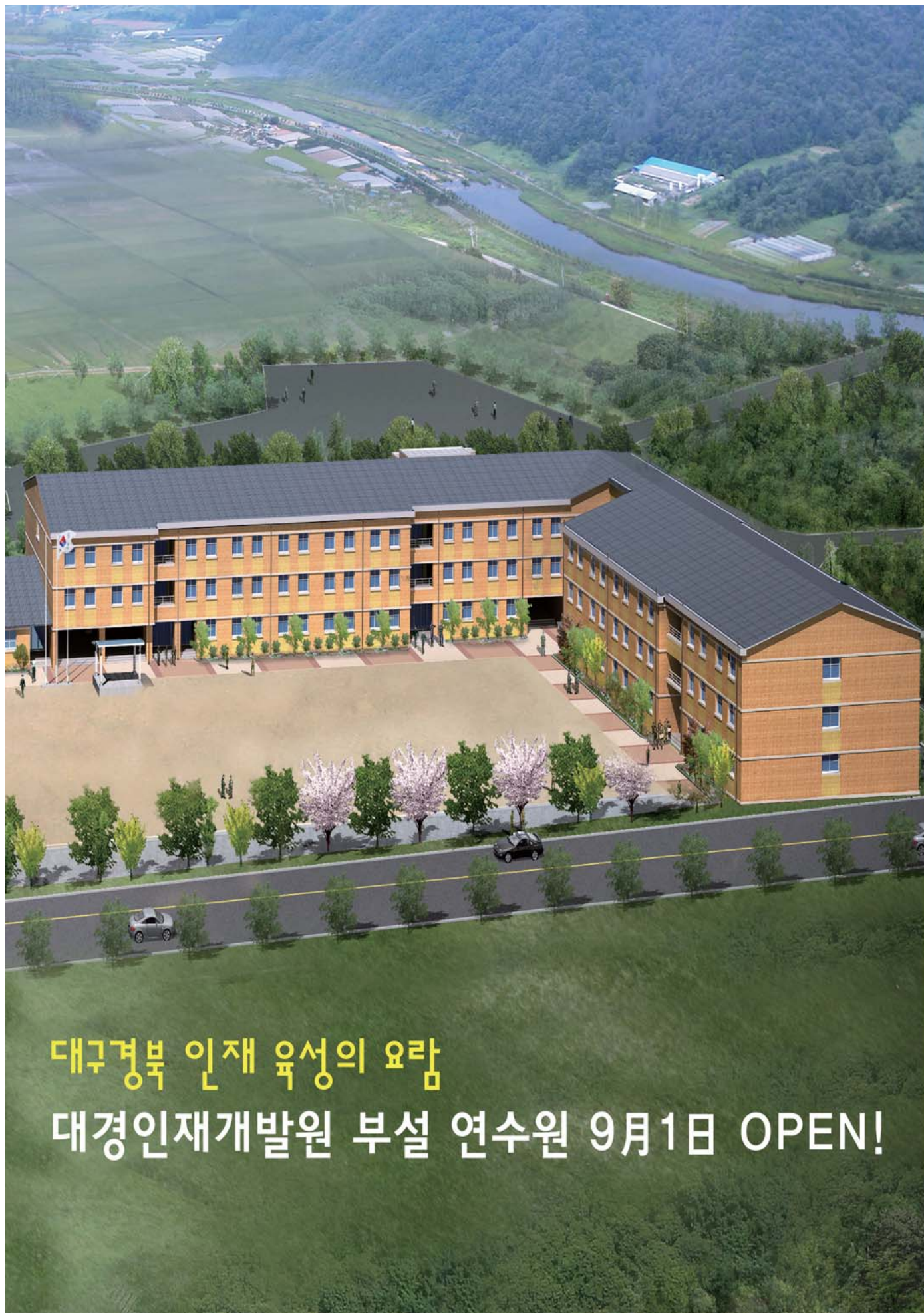
민선 6기 칠곡군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매년 1천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인구 증가세에 힘입어 지자체 경쟁력이 수직상승 중에 있다. 칠곡군이 조사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기준으로 칠곡군 인구는 12만5천8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북도내 군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군지역 중 대구 달성과 경남 울주, 부산 기장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것이다. 실제로 칠곡군의 인구는 최근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인구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한층 확인해진다. 칠곡군 인구는 지난 2011년 12만1천945명에서 2012년 12만2천984명에 이어 2013년 12만4천830명, 2014년 12만6천92명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 4간 연 평균 1천명 이상씩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칠곡군의 인구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 개발호재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가 매우 클 것이란 분석에 기초한다. 석적읍 남울리와 왜관읍 왜관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만간 조성될 예정이어서 인구 13만명 달성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기대감도 지역사회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젊은 층 인구 비중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도 눈길이 쏠린다. 칠곡군민의 평균 연령은 38.5세로, 청·장년층 비중이 전국 주요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에 속하는 등 역동적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칠곡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는 사통팔달 편리한 도로망과 함께 물류시설 등을 기반으로 한 산업용지 조성 및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게 주된 요인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지난해 왜관3차산업단지 용지분양에선 평균 2대1의 경쟁률로 100% 완료된 데 이어 칠곡농기계특화 농공단지 등 4개 공단 조성 또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인구 증가세에 힘입어 행정조직도 확대 조정되는 분위기다. 칠곡군의 경우 올 1월1일자로 부군수 직급이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지난 4월1일부터는 2개 국(局)이 추가 신설돼 조직 효율성은 물론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칠곡군은 아울러 최근들어 연이은 상복에 즐거운 비명도 지르고 있다. 고용증대 공로가 인정돼 지난해 일자리 창출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문화교육 선도도시 부문 '201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등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백성기 군수는 "칠곡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13만 군민이 화합한 결과물"이라면서 "앞으로도 소통과 통합의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배은정 기자



대구경북 인재 육성의 요람

대경인재개발원 부설 연수원 9月1日 OPEN!

범어네거리 일대 대구 대표 금융허브 우뚝 소득상위층 겨냥 금융점포 입점도 활발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가 지역 내 대표 금융 허브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대구의 월가답게 은행, 증권, 보험, 여신전문업체 등 국내외 금융권의 대구지역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 내 큰손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대구의 대표적 부촌(富村)으로 자리 잡은 데 따른 결과물로 풀이된다. 수성구는 이와 함께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대표적 수입차 강세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관련 업체의 진출 또한 활발한 분위기로, 동대구로(범어네거리-두산오거리)를 중심으로 수입차 매장의 고객몰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대구의 월가 우뚝

범어네거리 일대는 최근들어 '대구의 월가(街)'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범어네거리 또는 인근지역에 들어서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 영업점은 무려 15곳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기업은행은 대구경북본부, 한국수출입은행은 대구지역의 유일한 지점을 이 일대에 각각 두고 있다.

증권업계의 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국내 증권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과 함께 지점 통·폐합이 잇따른 가운데 범어지점만 이른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점이 이를 입증해준다.

실제로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의 기존 점포 3곳에 대한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범어네거리 일대에 위치한 대구금융센터는 지역 내 유일한 지점으로 살아남아 화제를 모았다.

KDB대우증권도 기존의 반월당에 위치한 지점을 범어네거리 WMC와 통합했으며, NH투자증권 범어동WMC는 올초 단행된 지점 통폐합의 소용돌이에서 제외돼 눈길을 모은 바 있다.

신협,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진출도 활발한 추세다. 참저축은행은 기존의 대구MBC 인근에서 뉴영남호텔로 최근 등지를 옮겼으며, 청운신협은 지난해 연말 범어네거리 인근에 지점을

신규 오픈했다. 이 일대에는 이 밖에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여신전문금융업체의 영업점도 빼곡이 들어서 있다. 이는 단일지역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금융기관 영업점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것이다.

금융권의 범어네거리 진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역 신규 진출 내지 지점 통폐합 시 '이전 1순위 지역'으로 범어네거리 일대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금융기관이 많은 이유에서다.

큰손 많다

국내외 금융기관이 이처럼 범어네거리 일대 진출에 눈독을 들이는 데는 지역 내 소득상위층이 가장 모여사는 대구의 대표적 부촌(富村)을 형성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물로 풀이된다. 인근의 두산위브더제니스, 롯데캐슬, 유림노르웨이 등 이른바 부촌 주거타운이 밀집해 있어 신규 자산가 영업에 유리한 때문으로 이해된다.

어느 정도일까. 관련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대구 수성구의 부자는 2천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6대 광역시

구(區)지역 중 부자가 가장 많이 모여사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통상적으로 금융권 수신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를 부자로 본다.

이번 조사 결과, 대구지역의 전체 부자 수는 7천20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수성구의 부자 비중은 전체의 4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구의 부자 10명 중 4명이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성구, 수입차 영업점 진출도 활발

대구와 수성구에서 많이 모여 살면서 동대구로를 중심으로 수입차 매장의 리뉴얼 및 신규 입점도 활발한 추세에 있다. 실제로 동대구로 범어네거리에서부터 두산오거리까지 약 3km구간에는 렉서스, BMW 미니, 인피니티 등 수입차 매장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동대구로와 한 블록 떨어진 들안길네거리와 희망로 네거리 인근에도 볼보, 아우디 매장 등이 성업 중에 있다.

수입차 업계에서 이처럼 '대구 공략'을 위해 수성구 지역에 눈

독을 들이는 데는 두터운 소비층을 겨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4월 자동차등록자료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성구지역의 외제차 등록대수는 3만4천34대로, 서울 강남구(5만7천281대)와 서초구(3만8천401대), 인천 남동구(3만4천170대)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수입차 통계 자료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성구의 외제차 등록대수는 경북 전체 등록대수인 3만1천560대를 상회하는 것이다.

업계의 고객잡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수성구지역에 오픈하는 수입차 매장에서는 단순히 차량 전시,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비시설은 물론 다양한 편의 및 부대시설을 함께 갖춰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입차 매장 한 관계자는 "수성구는 대구지역 8개 구군 가운데 외제차 구매가 가능한 잠재적 고객층이 가장 많이 모여사는 대표적 지역"이라면서 "이는 소득 상위계층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수입차 매장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배은정 기자





수성구, 전국 대표 교육특구 자리매김

대구 수성구가 전국을 대표하는 교육도시로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수성구에 위치한 자사고 경신고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명의 만점자를 배출하는 등 대구를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고교 재학생 대상의 각종 학력평가 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수성구지역 고교의 성적은 단연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2015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를 살펴보면 한층 확연해진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합격자 3명 이상을 배출한 대구지역 고교는 총 19개교로 집계됐다.

서울대 합격자를 모두 합한 결과, 대구는 수시와 정시를 포함해 149명을 배출,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 중 단연 최상위권에 포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시모집의 경우 서울대 등록 의사를 밝힌 합격자, 정시는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대구에서는 대구과학고가 22명을 배출해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이어 경신고(20명), 대륜고 9명, 대구외고 7명, 경원·대건·덕원고·정화여고·경북예술고 각 5명, 계성고·혜화여고 각 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3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수성구지역 고교는 대구지역 전체의 47%인 9개교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대

합격 기준으로 대구의 명문 고교를 압축할 경우 수성구는 단연 최고의 교육특구로 굴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신고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자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로 눈길을 사로 잡고 있다.

당시 경신고 3학년 5반인 이승민 학생과 12반 이승민 학생이 동명이인인 수능시험 만점자의 영광을 안았고, 5반 이승민 학생과 같은 반인 김정훈 학생과 10반 권대현 학생 또한 만점의 영예를 안았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구지역 만점자는 경신고의 4명이 전부이며, 전국적으로는 서울 은광여고에서 4명이 나와, 경신고와 함께 최다 배출고교로 이름을 올렸지만 졸업생을 제외한 재학생 기준으로 경신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점자를 배출하면서 전국적인 이목을 모은 바 있다.

한편 최근들어 부동산 경기 회복과 함께 실거래가 6억~7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아파트가 수성구지역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도 자녀 교육에 강점을 지닌 도시 특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수성구의 경우 초·중·고교 기준으로 교육 수준이 전국 최상위권에 속하는 대구의 대표적 교육도시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고교를 기준으로 전통의 명문 경북고 등을 필두로 최근들어선 경신고, 대륜고 등이 신흥 명문사학으로 이름이 높다.

배은정 기자

대구시 · 경북도 조직의 유효성이 뛰어나다

리더십(leadership)은 집단이 목표나 내부 구조의 유지를 위해 성원(成員)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해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리더십은 아울러 문자 그대로 리더십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과학 모든 분야 가운데서도 가장 광범하게 연구되고 논의되는 분야 중에 하나이다.

Yammarino는 리더십 연구에 대한 과거, 현재의 연구를 전반적으로 조명하고, 미래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리더십에 대한 수천 건의 정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리더십이란 특정한 상황(배경)에서 특정한 리더(예 : 상사 또는 감독자)와 추종자들(예 : 부하, 보고 계층 하위자)이 하나의 목표(비전, 미션)를 공유하고 일(예 : 목표, 목적, 과제)을 기꺼이(강압 없이) 공동으로 성취하려고 여러 수준(개인, 쌍방, 집단, 전체)에서 리더와 추종자 간에 상호 작용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지금까지의 리더십 연구의 두드러진 특징은 좋은 측면의 리더십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 많은 건설적 리더십, 예컨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진성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창의적 리더십 등 수 많은 관련 이론들은 모두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며, 그 안에는 선(善)과 성과 긍정의 이미지만 들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어두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적지 않다. 심리학에서 파괴적 리더십에 대한 주제를 연구한 학자들은 사람들이 가지는 부정적 정보나 경험이 긍정적 정보나 경험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나쁜 것이 선한 것 보다 더 강력하다”는 명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명제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파괴적 리더십(Yammarino, 2013)’이라는 다소 생소한 부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부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직 내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의 건전성과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대구경북 공무원 사회에는 이러한 파괴적 리더십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 이를 검증하기 위해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용을 인용하여 파괴적 리더십의 요인 중 부정적 성향, 상사의 권력, 그리고 적대적 풍토 등을 재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결과를 살펴 보면, 대구시 및 경북도 공무원들의 조직 유효성은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사의 권력은 다소 높게 나타나 교육훈련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본수는 경북도청 공무원 160명과 대구시청 공무원 100명이

며, 배점은 5점 리커드 척도(전혀아니다 1점~매우그렇다 5점)를 활용하였다. 5점 척도에 의한 평균점수를 도출한 결과, 점수가 낮을수록 조직 내 파괴적 리더십은 낮고 조직 건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파괴적 리더십의 인적요인에 해당하는 리더의 부정적 성향을 알아보았다. 부정적 성향(정서)은 화, 죄책감, 두려움, 긴장, 주관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부정적성향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비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북도청과 대구시청 공무원조직 내 리더의 부정적성향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부정적 성향	5점 척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나의 리더(상사)는 죄책감을 잘 느끼는 편이다	2.07	1.93
나의 리더(상사)는 당황해 하기를 잘한다	2.02	2.03
나의 리더(상사)는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다	2.78	2.72
나의 리더(상사)는 긴장을 잘 느끼는 편이다	2.43	2.28
나의 리더(상사)는 겁을 잘 내는 편이다	2.18	2.14
나의 리더(상사)는 두려움을 느끼는 편이다	2.14	2.15
나의 리더(상사)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다	2.01	2.07

결과를 보면, 리더들의 부정적인 성향은 2점대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구경북 공무원 조직의 리더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갖고 있어 스스로에 대해서나 조직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상사의 권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권력이 높은 사람은 남의 관점을 덜 고려할 수 있고, 자신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다른 사람은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덜 이해할 수 있다. 경북도청과 대구시청 공무원조직 내 상사의 권력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상사 권력	5점 척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나의 리더는 내가 맡은 일에 열중하도록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31	3.19
나의 리더는 내가 앞으로 맡을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38	3.28
나의 리더는 나의 승진이나 보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31	3.37

결과를 보면, 조직 내 구성원이 체감하는 상사의 권력은 보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조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우리 조직에 많이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적대적 풍토에 대해 알아보았다. 적대적 풍토는 구성원들이 다른 동료들을 향하여 시기, 불신, 공격적이라고 느낄 때 나타나는 하나의 감정적 풍토의 유형이다.

적대적 풍토가 존재할 때, 집단 구성원들은 시기심이 존재하고, 신뢰수준이 낮고, 타인에 대해 공격적일 수 있다. 경북도청과 대구시청 공무원조직 내 적대적 풍토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적대적 풍토	5점 척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우리 부서에서는 서로간 질투에 눈이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2.18	1.99
우리 부서에서 나는 가끔 뭔가 야속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2.27	2.34
우리 부서의 사람들은 남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2.28	2.28
우리 부서 사람들은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을 경계한다	2.26	2.03
우리 부서에서는 사람들이 특별히 친절하면 저의를 의심한다	2.25	1.90

결과를 보면, 대구경북 공무원 조직의 적대적 풍토는 2점대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적대적 풍토 즉, 조직 내에 시기심, 불신이 널리 확산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구성원들 간에 상호 공격적인 느낌은 구성원들에게 적대적 행동이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고 심지어 조장하기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대구경북 공무원 조직 내에는 이러한 조직문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 리더십은 조직의 긍정적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구성원들의 만족감과 함께 조직의 발전을 가져 오는 원동력이 된다. 이에 반해 파괴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불만족과 이탈, 그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조직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그 조직이 공조직이라면 조직의 폐해는 고스란히 대신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지역의 공무원 조직은 부정적 리더십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결과가 실제적인 공직사회의 분위기와 부합하여 대신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홍순대 편집위원



대구 노후산단 새단장 ‘성서1·2차’ · ‘서대구’ · ‘염색산단’ 도시형 복합산단 리모델링

성서1·2차 및 서대구·염색산업단지 등 대구지역 노후 산단 3곳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돼 창조경제 거점 산단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제3산단과 함께 대구의 대표적 노후산단의 도시형 복합산단 리모델링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지난 7월 7일 시행에 들어간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에 근거해 착공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을 대상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기반시설 및 산업집적, 인력양성, 연구기반 구축 등에 주력하는 대표적 국비지원 프로젝트다. 이번 정부 공모사업에서는 국가 산단 3곳, 일반 산단 9곳 등 전국적으로 12개 산단이 선정됐으며, 이 중 대구는 성서1·2차 산단 공동(재생+혁신)사업, 서대구산단 혁신사업, 염색산단 재생사업에 각각 지정됐다.



성서 1·2차산단 경쟁력 수직상승

성서1·2차산업단지는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 최대 산단 중 한 곳이다. 다만 착공한지 30년이 지나 심각한 노후화는 물론 지가상승 및 소규모 필지 중심의 토지이용에 따라 임차업체 증가 등 영세화가 심화되는 문제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비 315억원 등 총사업비 930억 원을 투입해 △만성적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주차시설 대대적 확보 △인도 블록 및 가로수 수종 교체 등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복합커뮤니티 기반조성을 통한 근로자 복지 및 문화공간 조성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좁은 도로변 주차로 인한 화물차 교행 불편에 따라 입주기업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한 방편으로 도로환경개선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서산단은 지난해 12월 일반산단 중 최초로 혁신산단으로 지정돼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에 있으며 재생사업과 혁신사업 연계를 통해 대구 경제혁신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대구산단 도심형 산단으로 리모델링

지난 1978년 조성된 서대구산업단지 역시 30년 이상 경과한 대구의 대표적 노후산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입주 기업의 경우 R&D(연구개발) 연구역량 부족은 물론 섬유 등 주력산업 비중 감소에 따라 최근들어 산업 경쟁력을 크게 잃고 있는 게 현주소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공장 이전 및 필지세분화로 인해 업체 당 종사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데다 입주기업 영세화 및 기업 지원시설 부족 등 복합적 당면 현안 과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대구산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 노후공단 재생사업(기반시설확충)과 연계하는 한편 총 사업비 1천870억 원을 투입해 창의 및 혁신산단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혁신지원센터를 비롯해 근로자건강 지원센터, 공동기숙사, 근로종합복지관 등을 건립한다는 게 골자다.

염색산단도 사업비 1천898억 투입 리모델링

염색산단 또한 조성 36년이 경과한 대구의 대표적 노후산단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한 주차장 및 물류센터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 만연에 따라 입주기업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형편이다. 산단 내 여유부지 부족에 따라 기업들의 신규 입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업은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천898억 원을 투입해 산단 노후화 해결 및 재생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단 내 토지이용계획 효율화를 위해 비(非)염색업체의 이전을 유도하고 외부 염색업체의 산단 내 입주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집적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주차시설 3곳, 공동물류센터 2곳을 신규 조성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

다. 산단 환경개선을 위해선 녹색산책로를 조성하고 보행정비 사업을 통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동시에 경관 자원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환경부 등과 연계해 염색 폐수 슬러지 저감 및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악취 개선 및 염색공정 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시설 첨단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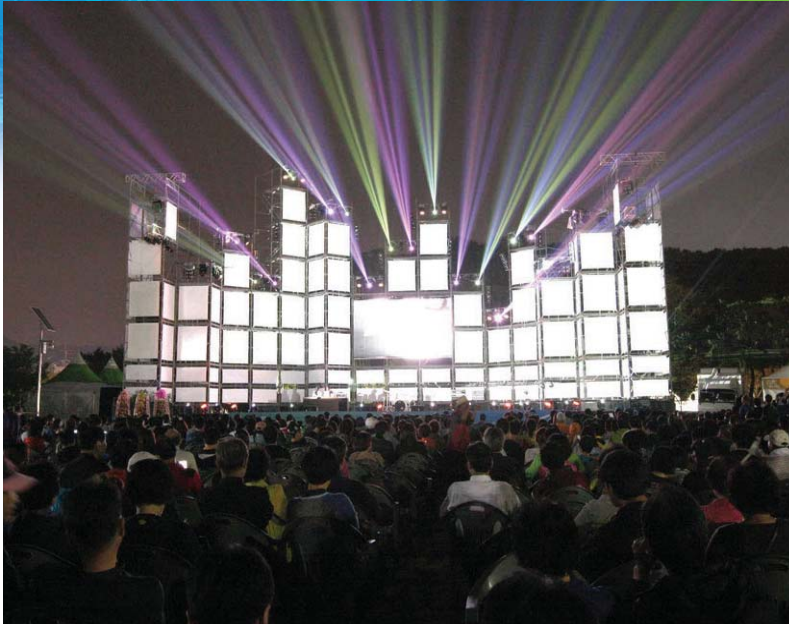
대구시도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부처 등과 공조관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산업부 등과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성서1·2차 및 서대구·염색산업단지에 대해선 산업·문화·주거가 공존하는 도심형 복합산단으로 리모델링해 산단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배은정 기자



‘수성못페스티벌’ 지역 명물 축제로 우뚝



대구 수성구를 대표하는 축제로는 단연 수성못페스티벌로 압축된다. 지난해 수성못페스티벌은 9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수성못 일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수성못페스티벌은 천혜의 관광자원이자 지역민들의 대표적 쉼터인 수성못과 대구 대표 먹거리타운인 들안길, 명품 공연시설인 수성아트피아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공연 및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수 있도록 기획한 게 특징이다.

‘2014년 수성못페스티벌’에서는 첫째 날인 9월26일 전야제 행사로 서울시립무용단과 트로트가수 신유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둘째 날인 27일에는 클래식 갈라쇼와 온누리국악단 타악퍼포먼스에 이어 아프리카밴드 등이 무대에 올랐고, 가수 이동원의 열창에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러시아인 필하모닉 내한공연이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무대에서 펼쳐져 클래식 마니아 등을 중심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이 기간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수성못을 배경으로 스마트폰 사진찍기 이벤트가 열렸고, 창작등 및 소망등 제작 행사 등에도 시민들의 큰 호응이 쏟아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수성못페스티벌’에선 메인 행사의 하나로 김밥말기 1천20m에 도전,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최장기

록에 등록된데 이어 지난해도 800m 김밥말기 행사를 열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수성구 측은 김밥말기 행사와 관련,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활성화하고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수성구는 민선 5기 첫해인 2010년 7월 수성폭염축제를 열었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수성못 일대에서 수성페스티벌을 연데 이어 2013년부터는 수성못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해 시민 및 관광객 결으로 다가서고 있다.

수성구는 올해 수성못페스티벌도 10월 중 개최하기로 확정된 상태다.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생활 예술인은 물론 정상급 가수 등 전문 예술인들의 축하 공연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수성구의 페스티벌 육성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는 물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세계 대표축제로 육성하겠다는 게 목표다.

수성구 관계자는 “올 수성못페스티벌에선 대구를 찾은 관광객 및 시민 등 참여자 모두가 즐거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라면서 “대구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은정 기자



리얼로봇쇼 2015

in DAEGU

2015.07.15(수) - 08.31(월)

오전 10시 - 오후 7시



대구 이월드 83타워 2F 특별전시장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는
신나는 여름방학 로봇 체험전

“구간 연장 등 현안 과제 조속히 풀어야”

국내 최고로 모노레일 방식으로 도입, 운행되고 있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노선 연장사업 조기 추진노력은 물론 지속적 이용 수요 창출 및 광고 등 부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일고 있다. 지난 4월23일 운행에 돌입, 개통 석 달여를 맞은 도시철도 3호선은 현재 지속적인 이용 수요 발생 등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에 적잖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최첨단 모노레일 방식 도입 운행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당초 한국형 자동안내궤도방식 경전철인 K-AGT 방식을 적용키로 하고 지난 2006년 기본계획 승인을 얻은 것이 그 출발점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모노레일 시스템 도입 시 K-AGT 방식에 비해 소요 예산을 1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공사기간 또한 5년여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모노레일 방식으로 급선회, 지난 2008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재차 받은 후 조성공사에 뛰어들어 이래 지난 4월 개통하는 결실을 맺었다.

도시철도 3호선은 현재 인구 30만명이 거주하는 북구 칠곡에서 도심을 경유해 인구 11만의 수성구 지산·범물동을 30개 정거장으로 잇고 있으며, 23.95Km 구간에 편도기준 48분 가

량 소요되고 있다.

도시철도 3호선에 적용된 모노레일 시스템은 최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경전철로, 무인자동운전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안정성이 뛰어난데다 도시환경과의 조화 효과도 크다는 장점을 지닌다. 모노레일은 1888년 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된 이래 지난 60년대부터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도시교통수단으로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인명사고 발생 제로(Zero)인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일 수송 수요 15만명 안팎 전망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은 수송 수요 및 교통 부담을 측면에서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수송 수요는 전문가 예측 결과, 일일 기준 15만명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실시한 감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수송분담률 또한 9.7%에서 16.1%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조사기관 측의 설명이다.

도시철도 3호선 주변도로의 교통량의 경우 적게는 1%에서 많게는 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상습 지정체 구간인 도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길 주요 병목현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3호선 기·종점 운행 소요시간이 48분에 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시민들이 얻는 통행시간 및 비용 등의 절감편의 효과만 연간 1천5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구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대 효과는 개통과 함께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철도 개통 한달여만에 이용객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수요 발생이 이뤄지고 있는 게 이를 잘 입증해준다.

아울러 도시미관 개선효과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 3호선 조성 과정에서 통신 및 전기시설 지중화사업을 진행한 동시에 옥상경관 정비사업을 필두로 하수시설 확장, 인도 및 도로 개선작업에 대대적으로 나선 때문이다.

노선 연장 공감대 확산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시너지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노선 연장은 대표적인 숙원사업으로 지적된다. 중·단기적 관점에서 현재 종점인 범물동과 대구스타디움, 신서혁신도시를 잇는 13km 구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일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출발역인 동호동과 칠곡군 동면 구간에 대해서도 연장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지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대구시도 화답하는 분위기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스타디움과 혁신도시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을 2015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해당 사업으로 확정되면 기본계획 및 설계를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3호선 종점인 용지역(수성구 범물동)에서 대구스타디움을 거쳐 신서혁신도시까지 13km 구간에 정거장 9곳을 만드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 완공한다는 게 목표다.

도시철도 3호선 활성화를 위해선 이용 수요 창출 및 교통 편의성 증진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철도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운행을 늘리고,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3호선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조정 및 개편작업에 나서는 동시에 시내버스, 택시,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 환승시설을 추가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흑자 경영 조기 달성 노력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진단된다. 광고 등 부대사업 활성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광고 수입 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작업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시철도 3호선 운영 주체 측도 이에 호응하는 분위기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시스템 가동 등 안전 사고 없는 도시철도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광고사업 확대 등을 통한 흑자경영 달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량 편집위원

대구인구 감소세 지속

지난해 1만5천명 이상 순감

지난해 대구 인구가 1만5천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입자에 비해 전출자가 그 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대구 인구이동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대구, 전입에 비해 전출인구 많았다”

대구 인구는 최근들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 추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열악한 경제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보니 청년층을 중심으로 직장을 찾아 수도권 등 타지로 주소를 옮기는 현상은 만연되고 있는 형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전입인구는 35만213명으로 전년보다 1천660명(0.5%) 감소한 반면 전출인구는 2천515명(0.7%) 늘어난 36만5천73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해 동안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1만5천526명 많았던 셈이다.

대구의 인구 순유출은 지난 1995년 이래 10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통계청 측은 밝혔다. 이 중 전입인구는 30대가 7만6천8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6만142명, 20대 5만8천85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30대 남녀가 각각 3만9천888명, 3만6천9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2천966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입률 역시 30대가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 18.3%, 10대 미만 17.0% 순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전출인구 역시 30대가 가장 많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30대 전출인구는 7만8천723명에 달했으며, 이어 20대 6만6천10명, 40대 6만1

천814명 순이 뒤를 이었다.

30대 남녀의 전출규모는 각각 4만669명, 3만8천54명에 이르렀고, 남자가 여자보다 2천615명 많았다.

동구, 인구 순유입 대표적 지역

지역 내 인구가동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대구지역의 구군 내 인구 이동의 경우 전년보다 5천363명(4.0%) 줄어든 12만7천4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2만2천342명(14.9%) 줄어든 것이다.

구군간 인구 이동 역시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 전년대비 102명(0.1%) 줄어든 12만5천180명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해선 4만563명(24.5%) 급감한 것이다.

대구지역 8개 구군 가운데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동구(3천781명)가 1위를, 2, 3위는 각각 중구(2천530명)와 수성구(152명)가 차지했다.

이에 반해 서구(-2천841명), 달서구(-1천848명), 남구(-1천554명), 북구(-164명)는 유출규모가 큰 지역이란 오명을 받았다. 전년대비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한 대표적 지역은 달서구((3천778명→1천848명))로 나타났다.

“경북도에서 전입 인구 가장 많았다”

지난 한 해 타 시도에서 대구로 전입한 인구는 9만7천571명으로, 전년보다 3천805명(4.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북도가 4만7천44명(48.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경기도 1만961명(11.2%), 서울시 1만62명(10.3%) 등의 순이었다.

대구에서 타 시도로의 전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띠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대구에서 타시도로의 전출 인구는 전년보다 7



천980명(7.6%) 증가한 11만3천97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북도(5만1,852명), 서울시(1만3천735명), 경기도(1만2천813명)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와 20대는 서울로 순유출이, 40·50·60·70대에선 경북으로의 유출이 가장 많았다. 또 30대에선 경남지역으로의 순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구 동구지역에 인구 유입이 많았던 것은 혁신도시 등의 개발호재에 따른 유입 효과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서구 등의 인구 감소는 정주여건이 다른 구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북 인구는 전입보다 전출이 근소하게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전입인구는 33만7천041명으로 전년보다 7천923명(2.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전출인구도 7천46명(2.1%) 증가한 33만8천29명으로 나타났다. 전입자에 비해 전출자가 988명 많았던 셈이다.

전입인구는 30대(7만1천901명)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6만4천435명, 40대 5만3천757명 순이었다.

이 기간 전출인구 또한 30대가 7만2천7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7만1천453명), 40대(5만1천3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안동시(635명), 경산시(547명), 포항시(503명) 등은 인구 순유입 지역인데 반해 경주시(-619명), 영주시(-526명), 구미시(-409명) 등은 대표적 순유출지역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의 전입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시로 5만1천852명으로 집계됐다. 경북에서 타 시도로의 전출 역시 대구가 4만7천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층 별로는 40대 이상에선 순유입이 많았던데 반해 30대 이하층에선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다.

배은정 기자



인(仁)에 대해

한자의 형(形)과 의(義), 음(音)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최초의 자서(字書)인 설문해자(說文解字)는 중국 후한(後漢)의 경학자(經學者)인 허신(許慎)에 의해 지어졌다. 허신의 대표작 설문해자 인부(人部)에 따르면 인(仁)은 인(人)과 이(二)가 결합해 이뤄졌으며, 그 의미는 '친(親)하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해석은 중국 후대로 이어져, 설문해자의 주서 30권을 저술한 청나라 학자 단옥재(段玉裁) 역시 주(注)에서 인(仁)을 '사람이 둘 이상 모여 친하게 지낸다는' 뜻에서 인(人)과 이(二)자가 합쳐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때 '친하다'는 우리나라 말로 '어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 곧 사랑함과 친절함 등 전인격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仁)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문헌에 기록된 것은 상서(尙書)의 금등에서 인데, 인(仁)에 대해 재능(才能)과 미덕(美德)을 가리키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인(仁)은 공자(孔子)에 의해 일체의 덕목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그 의미도 한층 심화돼 곧 선(善)의 근원이 됨과 동시에 행(行)의 기본으로 공자사상의 핵심 윤리가 된다. 논어(論語)의 이인편(里仁篇)에는 '군자가 인(仁)을 떠난다면 어찌 군자로서 이름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을 때에도 인(仁)을 어기지 않으며, 다급한 순간에도 반드시 이를 지키고 넘어서는 순간에도 이를 지킨다'는 구절이 나온다. 인(仁)이야말로 군자가 실천해야 할 최고 덕목이라는 것이다.

공자는 다만 인(仁)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인(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후세 학자들 사이에서는 인(仁)의 개념을 두고 견해의 차이가 다소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효(孝)·제(悌)·예(禮)·충(忠)·서(恕)·경(敬)·공(恭)·관(寬)·신(信)·민(敏)·혜(惠)·온량(溫良)·애인(愛人) 등의 의미를 아우름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인(仁)을 구성하는 여러 덕목 중 핵심은 남을 사랑하는 애(愛)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사랑함(愛)이 부모로 향하면 효(孝)가 되고, 형제에게 미치면 우(友)가 되며, 나라를 생각하면 충(忠)이 된다는 것이다. 또 그 사랑이 자녀에게 이르면 자(慈)가 되고 남의 자녀에 이르면 관(寬)이 되고, 나아가 백성에게까지 이르게 되면 혜(惠)가 된다는 것이다. 효우제충

(孝友悌忠)과 자관혜(慈寬惠)를 성실하게 실천하면 공·경·신·민·서는 자연히 그들 속에서 생기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공자는 증자(曾子)에게 자신의 도는 일관지(一而貫之)라는 말도 남겼다. 이를 충서(忠恕)라고도 의미지었다. 일관되게 남을 용서하고 스스로를 극복하며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을 인(仁)이라고 본 것이다.

인(仁)은 그래서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심', '사랑', '용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조직사회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仁)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 조직이 직장이라면 동료들과 팀워크를 이루며 성과를 내는 것이 곧 인(仁)이 되는 것이다. 그 밑바탕에는 철저한 '관용'과 '성실', '사랑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인(仁)을 확산하려면 리더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또한 인(仁)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곧 '수기'와 '충서'를 몸소 실천하는 구성원이 많다면 그 조직은 인(仁)함으로 넘쳐날 것이다. 논어 웅야(雍也)에서는 '인자(仁者)는 자기가 서고자 할 때에는 남부터 세워주고 자기가 이루고자 할 때에는 남부터 이루게 한다'라고 전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헤아려 복돋아주고 보살피는데 힘써야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일상생활에 공손하고 일을 처리함에는 공경스럽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는 충실(居處恭 執事敬 與人忠)로 대함을 실천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유교사상의 핵심 덕목인 인(仁)의 철저한 실천으로 우리사회가 한층 밝고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진구
경영저널 대표이사·발행인

자연의 깊은 울림
마음의 깊은 감동
대한민국 힐링의 시작

문경

- 과거길, 여행길 등 우리나라 옛길 유산을 한눈에 보는 **옛길박물관**
- 자녀와 함께 배우고 즐기는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장 **자연생태공원**
- 다양한 드라마, 영화가 촬영되어 볼거리가 풍부한 **문경새재오픈세트장**
- 맨발로 황토를 밟으며 자연을 맘껏 호흡할 수 있는 **맨발 황토길**

관광안내센터 문경새재도립공원내 T.054-550-6414



한국인이 꼭! 가 봐야 할
관광지 3위 선정!

**문경
새재**



눈이 먼저 감탄하는 문경팔경

문경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진남교반, 기암괴석과 맑은 계곡물이 아름다운 용추/쌍룡/선유동/사재/문일계곡, 봉암사 백문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경천령



지루할 틈이 없는 체험여행

국내 최초 철루자전거, 문경관평시력경, 문경힐링랜드, 사계절밭에 등 레저코스, 예술혼을 찾아보는 도자기전시관, 힐링을 주는 온천관광지여행



유유한 세월을 담은 전통문화

봉암사 극락전, 대승사 금동보살좌상, 건봉사 동종 등 다양한 국가문화재, 고모산성 등의 유적지 석탄산업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문경석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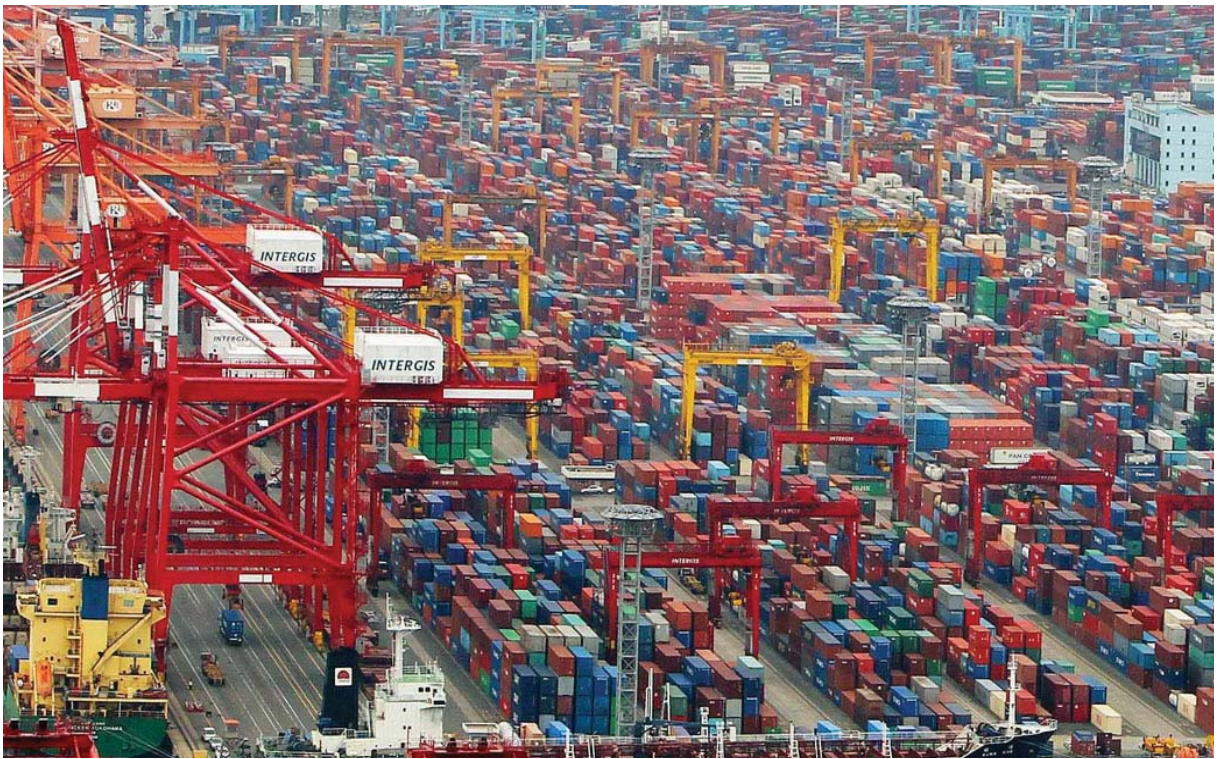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지역축제

전국 으뜸 문경사과축제, 예술혼을 담은 문경진품찾아밭축제, 세계 최고품질 문경오미자축제, 옛길을 걸으며 추억을 쌓는 문경새재옛길달빛산마여행

올 하반기 수출시장 ‘먹구름’ 반도체 · 컴퓨터 · 일반기계 제외 전 업종 고전 예상

올 하반기(6~12월) 수출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을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반도체 · 자동차 ·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주력 수출품목 13대 업종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업종별 긴급 수출점검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수출 여건 및 전망을 흐림 내지 비 등 날씨 기상도 형태로 발표했다. 반도체, 컴퓨터, 일반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전 업종의 수출 기상도가 어둡게 나와,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전망 암울

이번 수출 기상도 분석 결과, 총 12개 주력 업종 가운데 9개 업종에서 수출전망이 어둡게 나왔다. 우선 자동차 업종의 경우 완성차업계의 신차 출시 효과로 반짝 수출 전망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지만 주력 수출시장인 러시아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연관 산업군인 자동차부품업종 또한 신흥시장 등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올 하반기 조선 · 해양플랜트 및 무선통신기기업종의 수출전

망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정부 측은 내다봤다.

조선해양플랜트의 경우 수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무선통기기 또한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 업체와 최대 경쟁 관계에 있는 애플의 신제품 출시는 물론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흐린 기상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가전제품의 수출도 대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가전 업계의 해외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TV 등을 중심으로 가격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는데 따른 것이다. 아



올러 평판디스플레이 제품을 비롯한 철강, 석유화학, 섬유제품의 수출기상도도 나쁘게 나왔다.

평판디스플레이의 경우 대형 LCD 제품의 공급 과잉에 따른 단가하락이 최대 악재로 지적됐다. 철강제품도 사정은 비슷해, 공급과잉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석유화학과 석유제품도 유가하락에 따른 단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섬유류도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 물량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업체 측 “수출 지원책 조속히 세워달라”

올 하반기 수출시장이 이처럼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자, 국내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한 통상대응, 금융혜택 등과 같은 수출 증대책을 조속히 세워달라며 정부 측에 이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이 중 할당관세는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업체에서 요청하는 지원 대상군에 속한다. 국내조달이 어려운 OLED 장비나 나프타 제조용 원유 수입 시 할당관세 혜택을 적용,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또 자동차 및 일반 기계업계에선 최근들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엔화 및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환율안정화 정책을 빠른 시일내에 내놓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전업계에선 올해로 일몰제가 끝나는 R&D(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일반기계업계에선 해외투자용 설비를 국산장비로 조달할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 적용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주문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섬유업계 역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무역금융 지원 및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해 자금난 문제를 덜어줌으로써 수출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세제지원 등 지원책 확대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열린 ‘업종별 긴급 수출점검 회의’는 최근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관련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은 최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불황형 흑자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불황형 흑자란 수출이 줄어 들고 있는 가운데 수입이 이보다 더 많이 줄어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출은 469억5천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은 13.6% 하락한 367억달러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2억4천만달러 흑자로 4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지속했다.

이런 현상은 올 상반기 내내 이어졌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한 2천690억 달러, 이 기간 수입은 15.6% 감소한 2천223억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67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은 반도체(310억2천만달러), 컴퓨터(39억900만달러), 선박(225억1천만달러) 등 IT제품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지만 석유제품(166억5천만달러), 석유화학(194억7천만달러), 철강(163억4천700만달러), 섬유(71억4천500만달러), 자동차(238억8천900만달러)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출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 조기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국내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지원책을 다각도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배은정 기자



○○시 용역계약 역외기관 독식

경북 ○○시가 원가계산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대구경북 소재 연구원을 배제한 채 서울, 부산 등 역외 기관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본격적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지역 민간 연구원 육성 및 역량 강화에 앞장서할 지자체 본연의 역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역외 연구원 계약 쏠림 가증

○○시의 역외 연구원 계약 쏠림현상은 최근들어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본보 확인 결과, ○○시는 지난 4월말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개발비용검토용역을 발주하면서 부산에 위치한 A원가계 산용역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대구경북에 본원을 둔 민간 연구원에서 해당 용역을 수주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펼쳤지만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론적으로 ○○시 측에서 대구경북지역 민간 연구원을 외면한 꼴이다.

○○시의 A기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4월 초 발주한 ○○○ 복합낙시공원 위탁운영 관련 타당서조사용역 또한 895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하순 발주한 ○○○○청정해수공급시설 위탁운영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역시 동일 기관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월 중순 발주한 ○○○○ 해역수변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개발비용확인산정용역도 A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하순 발주한 ○○문화관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관리 관련 용역에 대해선 서울에 본원을 둔 B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연구원 배제 행보는 최근들어 노골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시, 이례적 계약 행보

통상적으로 특정 역외 민간 연구원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은 이례적인 것으로, 상당수 지자체의 경우 관련 용역 발주 시 지역내 복수의 연구원에 분산, 의뢰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 것이다. 지역 민간 연구원 안팎에서는 유독 ○○시에서 이 같은 계약 행태가 고착화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다. 이는 대구지역 8개 구군 및 경북도내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내 민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관행과도 상반된 것이다. 실제로 본보가 구미, 김천시, 고령, 봉화군 등 무작위로 경북도내 4개 기초자치단체의 올 상반기 학술연구 및 원가계산연구용역 계약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 민간 연구원에 발주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 연구원 발끈

○○시의 역외 연구원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지역 민간 연구원에서는 한목소리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향토 민간 연구원의 역량 강화 및 체계적 지원, 육성을 통해 지방분권시대 정착에 앞장서야하는 명분과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 역외 민간 연구원들의 경우 지역 내에 지부 또는 지사를 설립,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등 지역 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주범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를 뿌리 뽑아야한다는 게 지배적 견해다. 이를 막아야할 지자체에서 묵인하고 있는 꼴이라는 불멘소리도 이 때문에 나온다.

익명의 지역 한 민간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시에서 유독 역외 연구원에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지역 민간 연구원 육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눈치다. 본보가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을 묻자, “지역 연구원에 대한 차별 대우는 절대 없었다”면서 “다만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서울 등 역외 기관과 계약할 경우 사업 진행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편집국〉

동행

코바코와 함께하면 힘이 된다.
 기업과 방송이 어우러져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공과 사를 똑바로 보여 드리는 것이 바로 방송이다.
 오로지 공과 사를 우선으로 하는 방송.
 국민과 함께 오로지 공과 사를 보여 드리는 방송. 코바코와 함께하면 힘이 된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는 방송광고 및 미디어를 통해 방송사의 안정적인 경영자원을 지원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www.kobaco.co.kr

내 몸 안의 보호막 예방접종

건강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각종 예방접종을 통해 수많은 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있다. 예방접종은 우리 몸에 들어온 외부 물질(항원)에 대항하는 물질(항체)을 인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몸에 병원성을 제외했거나 약하게 만든 외부물질(백신)을 소량 투입하여 병원체에 감염되기 전에 면역을 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북부검진센터 허정욱 원장은 “아직 면역력이 취약한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역시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필수 사항”이라면서 “어린 시절의 접종으로 생긴 면역 효과가 성인이 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균과 바이러스에 면역이 생겼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릴 적부터 예방접종으로 건강을 지키자

백신 예방접종의 발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힌다. 18세기 초반만 해도 몸에 난 작은 상처나 호흡기 전염으로 두창, 페스트 등에 전염돼 수십만명이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감염병 및 풍토병에서 인류를 지킨 것이 백신 예방접종이다. 처음 세상에 나온 신생아들은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전달받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태어난 지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자연 면역력이 사라져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러한 신생아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국가가 시행하는 것이 바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다.

2009년 3월부터 시행한 영·유아 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은 2012년에는 10종으로, 2013년에는 11종으로 확대되었다가 2014년에는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만 12세이하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총 13종의 백신을 무료로 예방접종해준다.

지원백신 13종은 BCG(피내용), B형 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이다.

성인은 어떤 예방접종이 있는가

예방접종은 소아청소년만 맞는다는 소수의 편견과 달리, 성인기에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소아 때 예방접종을 했지만 지속적인 면역 효과를 갖기 위해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성인기에 맞으면 효과가 더욱 큰 예방접종, 계절이나 직업에 따라 발생 위험이 높은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다. A·B·C·D·E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B형 간염과 C형 간염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만성간염과 간경화증, 간암으로 발

전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3회에 걸쳐 접종해야 하며 첫번째 접종을 받은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과 여섯 번째 달에 접종하면 된다.

3개월 연속 접종하는 방법도 있다. 9~10월에는 독감 및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 주목을 받는다. 독감 예방접종은 가장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이 접종한다. 9월 말에서부터 10월 초에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가 2주 이내에 생기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예방효과를 가지게 된다. 건강한 젊은 남녀보다는 소아, 만성질환자,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가 더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이들은 독감에 노출될 경우 39℃가 넘는 고열은 물론, 두통, 근육통, 폐렴, 중추신경염 등의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아울러 임신 중인 여성은 태아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행성출혈열은 농부, 공사장 인부, 캠핑하는 사람, 낚시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서 자주 발병하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열에 시달리게 된다. 해당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

표준 예방접종표 참고하고 내게 맞는 예방접종하기

흙이나 가축과 접촉하는 노동자, 정원사, 경찰관, 소방수 및 군인들은 파상풍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파상풍은 녹슨 못 등으로 입은 상처에 클로스트리듐 균이 독소를 만들어 신경에 영향을 줄 때 발생한다. 근육 경련, 호흡마비를 일으키지만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상태가 심해지면 사망할 수도 있다. 10년마다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가임기 여성이 간염 외에 준비해야 할 것이 풍진 예방접종이다.

풍진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홍역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붉은 발진이 얼굴과 머리, 몸 전체에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치유된다. 보통의 경우에는 큰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지만 임신 초기에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의 기형 발생률이 높아진다. 풍진 예방접종은 1회 접종으로 그 효능이 평생 지속되는 만큼 임신 준비기간에 미리 맞아두는 것이 좋다. 50대 이상은 심각한 통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의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대한감염학회는 최근들어 6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연령에 따라 효과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약 50%의 예방 효과가 있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상주시, 종합민원실 편의시설 대거 확충



상주시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종합민원실 편의시설을 새단장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식 꽃이를 부착한 민원서식 기재대를 비롯해 휴대폰 분실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기를 새로 교체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고려한 민원인용 의자를 구입하는 등 종합민원실을 한층 밝고 정감있는 분위기로 꾸몄다는 것. 이와 함께 역사사지의 마음으로 민원인을 가족같이 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출입구 2곳과 전 직원의 책상에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배

너와 표찰을 설치하는 한편 종합민원실 전 직원이 밝은 색상의 여름철용 민원 복을 주 3회 착용, 방문 민원인들이 쉽게 직원들을 찾을 수 있도록 편리성도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함창호 상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지속적인 환경정비작업 등을 통해 방문 민원인들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향상하는 동시에 변화를 유도해나갈 것”이라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시여성복지회관 신축... 본격적 업무 돌입



안동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여성복지회관을 최근 신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안동시여성복지회관은 사업비 66억5천만원을 들여 안동시 제비원으로 93(당북동) 일원에 대지면적 2천274㎡, 건물 연면적 3천9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사무실과 자원봉사실, 관장실 등으로 구성하는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기술 및 취미, 교양교육을 비롯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자격증반 교육실로 이용할 계획이다.

안동시여성복지회관 관계자는 “8만5천명에 이르는 안동지역 여성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잠재능력 개발은 물론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나서는 등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 장애인체육 활성화 앞장



구미시는 민선6기 2주년 시작과 함께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미시는 이에 앞서 민선6기 1년 동안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이어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및 가맹체육단체 발굴·육성에 적극 나서는 등 장애인체육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쏟아왔다.

구미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올 하반기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 및 장애인탁구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교실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매진하기로 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장애인 모두가 체육활동을 통해 생활에 활력과 희망을 얻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정책가치 실현을 위해
맞춤형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입니다.
www.kpar.kr

주요 사업

- 사회여론조사
- 고객만족도조사
- 기업이미지조사
- 광고효과조사
- 행정만족도조사
- 선거 및 공론조사
- 마케팅조사
- 기타여론조사

한국행정자치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래
100여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책결정을 위한
최고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재단법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

본 원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0길(옥산동)
Tel) 053-811-2820

대구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산동 1038-3
Tel) 053-766-0038 Fax) 053-766-0379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경인재개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교육 및 프로그램

- 인재양성
- 학점인증제
- 교육훈련
- 리더십 역량개발
- 성공 및 감성마케팅
- 편(Fun) 경영 등 경영전략
- 창업 및 기업가 정신
- 테마별 맞춤 특강
- 주민자치대학, 좌담회, 토론회 등



[주]대경인재개발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 3층

Tel) 053.721.6757 Fax) 053.766.0379